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02월
석사학위 논문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를 통한 학사경고자 유형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 해 진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를 통한 학사경고자 유형 분석

Cluster Analysis of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through 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MCCI)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 해 진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를 통한 학사경고자 유형 분석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조 해 진

조해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u>김택호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u>김나래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u>권해수 (인)</u>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A. 학사경고	5
1. 학사경고 개념	5
2. 학사경고 원인 및 특성	5
B.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	8
1.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	8
2.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와 학사경고	10
C. 선행연구 학사경고 원인 및 특성 검증	10
1. 학습무동기신념	11
2. 자기 주도성	11
III. 연구방법	12
A. 연구대상	12
B. 측정도구	12
1.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	12
2.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16
3.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17

C. 연구절차	18
D. 분석방법	19
IV. 연구결과	20
A. 학사경고 여부에 따른 설문 참여자 기본정보 및 학사정보 ...	20
B. 학사경고 여부에 따른 MCCI 프로파일 척도 PS 평균 비교 ...	22
C. MCCI 프로파일 척도 간 상관	24
D. MCCI 프로파일 척도 PS에 따른 학사경고 예측요인	26
E. 학사경고자 유형 분류	26
F. 학사경고자 유형별 특성	31
V. 결론 및 논의	33
참고문헌	38
부록	42

표 목 차

표 1. MCCI 척도 요약	13
표 2.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15
표 3.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	16
표 4.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및 신뢰도	16
표 5. 자기 주도성 척도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	17
표 6. 자기 주도성 척도 하위요인 문항 수 및 신뢰도	18
표 7. 설문 참여자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기본정보)	20
표 8. 학사경고 여부에 따른 차이 검정(학사정보)	22
표 9. 일반재학생-학사경고자 MCCI PS 평균 비교	23
표 10. MCCI 성격양식 범주 척도 PS 간의 상관	24
표 11. MCCI 걱정영역 범주 척도 PS 간의 상관	25
표 12. MCCI 임상징후 범주 척도 PS 간의 상관	25
표 13. 군집별 MCCI 평균점수	28
표 14. 군집별 MCCI 평균점수 순위	29
표 15. 학사경고자 유형별 차이(기본정보)	31
표 16. 학사경고자 유형별 차이(학사정보)	32
표 17. 학사경고자 유형별 학습무동기신념, 자기 주도성 평균 점수 차이	32

그림 목 차

그림 1. 성격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9
그림 2. 일반재학생-학사경고자 MCCI PS 평균 비교	24
그림 3. 계층적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의 수 결정	27
그림 4. 군집별 MCCI 평균점수	29

ABSTRACT

Cluster Analysis of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through 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MCCI)

Cho Haejin

Advisor : Prof. Kweon Haesoo, Ed.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College Academic Probation into clusters by finding factors that can predict the occurrence of Academic Probation by the Prevalence scores of the 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MCCI), an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survey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 fact-finding survey to prevent Academic Probation and provide services that meet the needs of those with Academic Probation at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of University C located in the province. In the research design stage, questionnaire items and measurement tools were added to prepare a screening and early intervention plan using 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MCCI), a multi-axis test for College students, and conducted online.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were guided through the URL for the survey, and students were allow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survey. A total of 936 people participated in the survey: 187 students who received Academic Probation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0, 268 students who received Academic Probation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and 481 general students who did not experience Academic Proba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research data suitable for the purpose.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MCCI) Academic Probation predictive factor scale consists of 3 scales of

Personality styles(Dejected, Unruly, Denigrated), 2 scales of Expressed concerns(Mental health upset, Academic concerns), and 3 scales of Clinical signs(Suicidal tendencies, Attention(Cognitive) deficits, Alcohol abuse), and a total of 8 factors. Second,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the types of Academic Probation at University C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Through the difference analysis of the clusters, they were named 'Short-term satisfaction-seeking dominant type', 'Maladaptive perfectionism dominant type', and 'Dejected/Anxiety Negative emotion dominant typ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Keywords :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College Academic Probation, Academic Probation, 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 MCCI, Cluster Analysi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충원율의 하락, 학업 중도 포기 및 중도 탈락 학생 증가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 입학 가능 학생 수가 전국 대학 정원을 밑돌게 되는 등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문대 및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19).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 기간에 저마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재학생의 학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정제영, 선미숙, 정민지, 2015). 현 시점에서 각 대학들은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문제를 더는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학 전체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안으로 보고 있다(이은정, 송영수, 김지하, 오수현, 2020).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2020)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교로 분류된 국내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하 및 동결과 같은 사회적 요구 아래 평균적으로 대학재정의 50% 이상을 재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박태환, 송윤정, 최태영, 2019),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도탈락률의 증가는 대학의 재정 안정성의 위협과 더불어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및 1인당 교육비 증가와 직결되고, 교육 수요자의 불만족을 낳아 다시 소속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높이는 악순환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김수연, 2006).

대학알리미(2020)에 공시된 중도탈락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국 251개의 4년제 대학에서 150,998명이 중도탈락하였다. 중도탈락 사유는 자퇴 64,329명, 미등록 48,092명, 미복학 32,711명, 기타 2,843명, 학사경고 2,667명, 수업연한초과 304명, 유급제적 45명, 학생활동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 학사경고로 인한 중도탈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도탈락 예방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2011년도에 대학기본역량평가에 학사경고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이 반영된 바 있으며, 이후부터 교수학습지원센터나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연준모, 2019).

2012년 이후로 학사경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발표 모두에서 급속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로 구분했을 때 위기 극복 및 상담 경험 12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23건, 학습부진 특성 및 실태 16건, 학습부진 원인 5건,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2건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 구분했을 때는 질적 연구 15편, 양적 연구 22편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연구는 위기극복 및 상담경험, 양적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가 많았다(연준모, 2019).

학사경고를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요인 중에서는 먼저 전공 불일치가 있다.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지 않고 단순히 진학만을 위한 대학 및 학과 선택으로 인하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 이지은, 황현우; 2018,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 다음으로 학습동기 부족에 관한 요인이 있다.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생겨난 보상심리와 함께 갑자기 늘어난 자유 속에서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경우이다(김명찬, 2013; 김종두, 2015; 박알뜨리, 이지연, 이희원, 2020; 전보라, 강승희, 윤소정 2015). 또한 무력감과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 열등감 등 개인 심리상태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사경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남영옥, 이대형, 2016; 임이랑, 2019). 이 밖에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설정과 시간관리, 시험전략, 학습방법 등의 학습전략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남영옥, 이대형, 2016; 이용진 외, 2017),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학습이 부족하여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김명찬, 2013; 배상환, 2014).

학사경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나 가정의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게 되어 학업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노혜숙, 2019; 이주영, 임수진, 좌현숙, 2016; 이지희, 신호정, 2017; 이훈병, 2016), 학내 구성원과의 유용한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남영옥, 이대형, 2016; 이용진 외, 2017), 학업 외적인 동아리 활동 참여가 학사경고까지 이어진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권혁재, 2012; 배상환, 201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동기 부족, 시간관리 미흡, 대학생활 부적응, 학사정보 부족, 대학 및 전공 기대 불일치, 대인관계 문제, 가정배경, 경제여건 등 다양한 변인들이 학사경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

서 제시된 변인들이 학사경고의 원인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남영옥, 이대형, 2016). 또한 연구방법에 따른 일반화의 제한점 이외에도 학사경고자가 성적 우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특성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은 연구 결과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권해수, 2016).

학사경고는 개별적인 요인이 아닌 다양한 관련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학업적 특성, 환경적 특성과 같은 다축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이지은, 황현우, 2018).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적인 진단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유형화를 통해 나타나는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고 각 군집의 차별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노혜숙, 2019).

학사경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선제 개입을 위해서는 학사경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군을 사전에 선별하고, 학기 중에 개입해서 필요시 개별적인 전문상담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학생들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활용할 경우, 여러 개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표준화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절단점이 없어서 원점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1차적으로 학사경고자 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도교수 대부분이 심리상담 및 검사 영역에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검사 도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남영옥, 이대형, 2016).

분야별로 특화된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수검자인 학생에게 부담이 많이 된다. 스크리닝의 단계에서는 전체 재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 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고, 대학생 대상으로 표준화된 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밀론대학생성격검사(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 이하 MCCI)를 실시했을 때 얼마나 학사경고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고, 학사경고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대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별 도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증진 및 중도탈락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학사경고를 예측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한다.

MCCI는 일반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상담센터에 찾아오는 내담자의 성격 양식과 임상 징후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MCCI는 대학생들

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단일 영역이나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와는 다르다.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학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압력과 요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 문제나 증상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MCCI는 대학생 내담자의 성격 평가뿐만 아니라 상담 진행과정을 재평가하거나 상담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 가능하므로 그 효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다(권해수, 천성문, 김지혜, 황순택, 홍상황, 2019).

앞서 살펴본 학사경고의 원인 및 학사경고 유형별 군집화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 간에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검사 요인을 선정할 때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은 통합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의 요인도 측정값 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남영옥, 이대형, 2016).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날개로 흩어진 각각의 척도 및 검사가 아닌 대학생 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MCCI를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실시한다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및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까지 두루 살펴봐야 하는 학사경고 위험군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사경고 경험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업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MCCI 군집 분석을 통한 대학생 학사경고 경험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 학사경고자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 학사경고자 유형에 따른 특성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A. 학사경고

1. 학사경고 개념

학사경고란 각 대학마다 다르지만 1.65학점 정도의 최저 기준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학사경고자라고 부른다. 학사경고 제도는 기준으로 설정한 최소한의 학업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김종두, 201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학사경고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및 지도 교수, 부모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도 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전호정, 2017). 학사경고 횟수가 누적되는 경우, 수강 학점 제한 및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를 받거나 제적 대상이 되는 등 학사 행정적 제재를 받기도 한다. 여러 차례 학사경고가 지속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Smith & Winterbottom, 1970).

2. 학사경고 원인 및 특성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사경고 원인과 관련한 요인은 크게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요인 중에서는 먼저 전공 불일치가 있다.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지 않고 단순히 진학만을 위한 대학 및 학과 선택으로 인하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이용진 외, 2017; 이지은, 황현우; 2018, 주영아 외, 2012). 다음으로 학습동기부족에 관한 요인이 있다.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생겨난 보상심리와 함께 갑자기 늘어난 자유 속에서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경우이다(김명찬, 2013; 김종두, 2015; 박알뜨리 외, 2020; 전보라 외, 2015). 또한 무력감과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 열등감 등 개인 심리상태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사경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남영옥, 이대형, 2016; 임이랑, 2019). 이 밖에도 학습을 효율적

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설정과 시간관리, 시험전략, 학습방법 등의 학습전략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강순화 외, 2000; 남영옥, 이대형, 2016; 이용진 외, 2017),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이 부족하여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김명찬, 2013; 배상환, 2014).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나 가정의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게 되어 학업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노혜숙, 2019; 이주영 외, 2016; 이지희, 신호정, 2017; 이훈병, 2016), 학내 구성원과의 유용한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남영옥, 이대형, 2016; 이용진 외, 2017), 학업 외적인 동아리 활동 참여가 학사경고까지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권혁재 2012; 배상환, 2014).

학사경고자를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학사경고자와 학업우수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전공학과 만족도, 학습기술, 시간관리 및 자기 조절 능력, 학업동기적 측면에서 학사경고자들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강순화 외, 2000). 하지만 대인관계에서는 학사경고자와 학업우수자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위의 대인관계망이 학습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영아 외(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남영옥, 이대형, 2016). 학사경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는 낮은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경제 여건과 가정 배경에 따른 태도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에서는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은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증진시켜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에, 경제 여건과 가정 배경은 학사경고자 사이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 부유함의 정도와 학업성취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되었다(김종두, 2016).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을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 행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연구에서는 낮은 지적 수준이나 기초학습능력의 결손과 같이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기능을 뜻하는 인지적 특성, 학습동기, 과도한 불안, 낮은 자기 통제 등과 같이 심리, 태도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정서적 특성, 학습전략, 학습습관 등 행동적 특성, 학습환경, 가정환경 등 환경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대식, 남미란, 김양주, 류경우, 2011).

이러한 학사경고 발생과 관련된 개별적인 다양한 변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사경고자를 유형별로 군집화하고자 한 선행 연구들도 있다. 이지은, 황현우(2018)는 학습부진의 원인과 특성에 따라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군집1 ‘교수와의 관계 및 전공 불만족형’, 군집2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군집3 ‘전공 기초지식 부족형’, 군집 4 ‘생활습관조절 미흡형’이 그것이다(이지은, 황현우, 2018). 각 유형별 학사경고의 원인과 주요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한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극복하고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노혜숙,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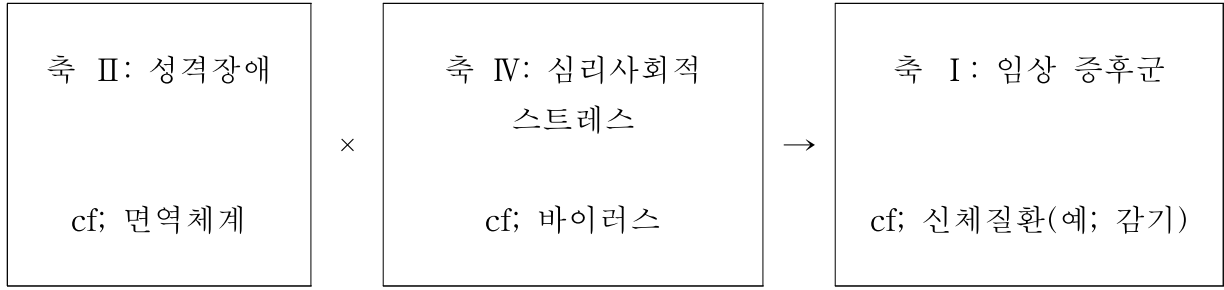
또 다른 연구로는 노혜숙(201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군집1 ‘일 병행 형’, 군집2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미인지형’, 군집3 ‘무기력 형’이다. 학사경고와 관련이 큰 요인을 학사제도 및 학습지원 인지, 학습역량, 자기효능감, 전공학과 만족도로 설명하고 있다. 학사경고 군집별로 성별, 학년 분포, 학습지원에 대한 인식, 요구하는 학습지원에서 차이가 있었다. 각 유형별 특성과 학습지원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는 학사경고 대학생에게 학습지원 제공 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대면 지도와 관리가 어려운 학사경고생의 특성에 맞춰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식적인 지도교수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노혜숙, 2019).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하고, 상담사와 지도교수가 즉시적으로 검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 및 해석 매뉴얼이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B. 밀론대학생성격검사(Millon College Counseling Inventory)

1.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

MCCI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차원적 자기보고형 성격검사이다. 이 검사는 주로 대학의 상담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에 찾아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밀론(Millon)이 개발한 여러 가지 임상심리검사들을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확장시킨 것이다.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학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압력과 요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MCCI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단일 영역이나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MCCI는 150개 문항, 32개의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성격양식(Personality styles), 걱정영역(Expressed concerns), 임상징후(Clinical signs)라는 3개의 독립적인 척도군을 프로파일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척도점수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징의 상대적 유병률을 의미하는 유병률 점수(Prevalence scores, 이하 PS)로 나타낸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척도들은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적절하다. 척도 프로파일에는 4개의 반응경향성 척도도 표시되어 있다. 이 검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하고, 수검을 마치면 척도점수의 프로파일 뿐만 아니라 수검자 반응의 타당성, 성격양식, 수검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 영역, 임상징후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와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기 위한 결과를 바로 출력하여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권해수 외, 2019).

MCCI에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성격양식, 주된 성격양식을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밀론의 이론에서는 성격이 임상적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DSM-IV의 다축체계에 비유하여 보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성격적 특징이 상호작용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Millon, 2004; 권해수 외, 2019 재인용). 즉 축II와 축IV가 상호작용하여 축I의 임상적 문제를 만들어 낸다. 개인의 성격이 많은 적응적 특성과 한두 가지 부적응적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별, 이혼과 같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나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높지만, 반대로 부적응적 특성이 많고 적응적 특성이 거의 없다면 사소한 스트레스조차도 축I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Millon, 2004; 권해수 외, 2019 재인용).



<그림 1> 성격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권해수 외, 2019)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의학적 장면에서는 DSM-5의 진단기준에 근거해서 진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밀론의 기본적 성격 원형과 심한 성격 원형을 측정하고 장애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대학생이 모집단이므로 장애가 있는 특성보다는 정상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용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심리적으로 힘들 때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증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격척도점수를 하나씩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현저하게 상승되어 있는 2개 또는 3개 척도가 나타내는 특징들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걱정영역척도는 대부분 대학생활 장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영역에서 문제시되는 감정, 태도 및 경험을 측정한다. 수검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정도가 높을수록 척도점수가 상승되어 나타난다. 임상징후척도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정서와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증상군을 측정한다. 모든 종류의 문제들과 관련있는 증상을 평가하는 척도(예; 우울, 불안/긴장)도 있고, 구체적인 임상집단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예; 섭식장애)도 있다. 걱정영역척도와 마찬가지로 임상징후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권해수 외, 2019).

검사 결과는 1단계: 내담자 정보의 확인, 2단계: 채점 결정과 타당성 평가, 3단계: 반응양식 평가, 4단계: 내담자의 성격양식 확인, 5단계: 걱정영역 확인, 6단계: 임상징후 확인, 7단계: 프로파일 결과 요약과 통합, 8단계: MCCI 결과와 다른 평가결과를 통합하기와 같이 전문적인 검토단계를 거치면 검사결과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권해수 외, 2019).

2.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와 학사경고

학사경고의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학사경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모든 요인들 간에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검사 요인을 선정할 때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은 통합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의 요인도 측정값 크기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남영옥, 이대형, 2016).

MCCI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호소하거나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특히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주로 다뤄지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나 증상을 전형, 예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한 검사이다. 즉, 대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거나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나 증상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형도구 또는 상담용 평가도구이다. MCCI의 척도 구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지에는 구체적 문제 문항(Problem-Specific Items)을 ‘주목할 만한 반응(Noteworthy response)’으로 제시해서 상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권해수 외, 2019). MCCI를 통해 학사경고자 특성을 파악하고, 학사경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그 특성이 현재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C. 선행연구 학사경고 원인 및 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MCCI를 활용하여 학사경고자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사경고 원인 및 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MCCI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심리상태(성격양식 및 임상징후), 또래 소외, 학업 문제, 경제적 부담 외에 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아르바이트 여부, 출결 관리,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무동기신념 및 자기 주도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1. 학습무동기신념

Smith & Winterbottom(1970)은 학습부진 학생들의 다양한 특징 중 대표적인 특성으로 낮은 학습 동기 수준을 이야기 하고 있다. Bandura(1986)에 의하면 학습동기는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의 근원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Ryan & Deci(2002)는 학습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무동기 상태라고 제시하고 있다. 무동기 상태인 학생들은 학습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조차 인식하지 못한다(조은문, 이종연, 2012).

Legault, Green-Demers, 그리고 Pelletier(2006)는 학생들이 학습무동기신념이 높기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학습무동기신념이 높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무가치신념), 학습에 필요한 역량이 낮다고 생각하고(무능력신념), 학업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무노력신념),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무흥미신념).

2. 자기 주도성

Guglielmino & Guglielmono(1991)는 자기 주도성이 자기 주도 학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는 태도, 능력, 성격적 특성, 즉 심리적 준비 정도 및 내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Long(1994)은 자기 주도성이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의지라고 정의하였고, Fisher(1995)는 자기 주도성을 학습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획득, 종합, 내면화하도록 이끄는 내재적 힘으로 보았다(정은이, 2018 재인용).

자기 주도성은 대학생의 학업 성취, 학교생활 적응, 향후 진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장은영, 2011) 자기 주도성이 낮아 학습 장면에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학생들은 결국 대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부진을 경험하거나 학사경고를 받게 된다(윤영란, 2021). 자기 주도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진달래, 2015). 학사경고는 학업 부진, 중도탈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후관리도 필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영란, 2021).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 소재 C대학 재학생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과 재학 중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재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에 동의하지 않은 자료,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중복으로 응답한 자료, MCCI 매뉴얼(권해수 외, 2019)에 근거하여 타당도척도에서 2점과 3점을 받은 자료, 성격양식척도의 모든 PS가 60점 미만, 걱정영역척도의 모든 PS가 64점 미만, 임상징후 척도의 모든 PS가 64점 미만인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자 187명, 2021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자 268명, 학사경고 경험이 없는 일반재학생 48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학사경고자 455명, 일반재학생 481명, 총 936명).

B. 측정도구

1. 밀론대학생성격검사(MCCI)

MCCI는 밀론의 성격과 정신병리에 관한 진화론적 모델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으며, 11개의 성격양식과 심각한 성격 경향(내향적, 회피적, 우울성, 의존적, 사교적, 자기애적, 반사회적, 강박적, 반항적, 피학적, 경계선), 11개의 걱정영역(정신적 혼란, 정체감 문제, 원가족 문제, 또래소외, 연인관계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학대경험, 거주환경문제, 경제적 부담, 종교문제), 10개의 임상징후(자살경향, 우울, 불안/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섭식장애, 분노통제, 주의(인지)결함, 강박증, 알코올남용, 약물남용), 4개의 반응경향성(타당성 척도, 노출 척도, 바람직성 척도, 비하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MCCI는 총 150개 문항(중복 채점되는 문항 있음)이며 5점 Likert 척도(0~4)로 구성되어 있다(권해수 외, 2019). 11개의 성격양식은 PS가 50점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으면 그 원형이 나타내는 행동과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S가 75점 이상이라면 특정 성격양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특징은 매우 현저한 특징이 될 수 있다. 걱정영역과 임상징후에서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 분할점은 PS 65점 이상이다.

<표 1> MCCI 척도 요약(권혜수 외, 2019; 이문향, 박우람, 홍상황, 2021)

척도 세트	척도명	척도 설명
반응경향(response tendencies)		
V	타당성	수검자가 검사 문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실되게 반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타당한 지표를 제공
X	노출	문항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수검자가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
Y	바람직성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측정
Z	비하	문제와 증상을 과장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
성격양식(personality styles)		
1	내향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양식
2A	회피적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주저하고 부끄럼이 많고 불편해하는 태도
2B	우울성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관적이고 우울한 태도
3	의존적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춰 생활하고, 맞추어 주는 행동 양식이나 태도
4	사교적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말이 많고 외향적인 행동 양식
5	자기애적	냉정하고 침착하고 자기확신이 강한 성격 양식
6A	반사회적	충동적이고 고집이 세고 지배적인 대인관계 양식
7	강박적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적인 태도
8A	반항적	개인주의적이고 비관습적 행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 양식
8B	피학적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인 행동을 하다가도 부정적이고 자기비하적인 행동을 하는 우유부단한 성격
9	경계선	강렬한 정서표현과 긍정적, 부정적 사고, 감정, 태도 및 행동이 나타나는 성격 양식
걱정영역(expressed concerns)		
A	정신적 혼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만족과 불행감 수준을 평가
B	정체감 문제	성적 특징, 자존감, 고독, 종교적 신념과 같은 영역에서의 전반적, 구체적인 정체감과 관련된 걱정거리
C	원가족 문제	가족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가족 구성원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짐을 지우고 있다는 느낌을 가짐

척도 세트 약어	척도명	척도 설명
D	또래 소외	고독감, 사회적 고립, 친구를 사귀기 어려움을 평가
E	연인관계 문제	이성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혼란, 최근에 연인과 헤어짐, 만족스러운 연인을 찾기 어려움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
F	학업문제	수강하는 교과목의 요구와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고함
G	진로문제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한 척도
H	학대경험	스토킹, 연인에 의한 학대와 같은 현재의 학대 경험, 데이트 강간과 같은 최근의 문제, 외상적 장면의 재현, 반복적인 학대 기억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영역을 포함
I	거주환경 문제	대학에서의 생활환경 문제(주변 환경의 소음 또는 룸메이트와의 갈등)를 평가
J	경제적 부담	수업료와 다른 학비를 지불 하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상태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상태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평가
K	종교문제	영적, 종교적 믿음에 대한 혼란과 불편감
임상징후(clinical signs)		
AA	자살경향	자살사고와 행동, 자기 손상적 사고에 동반되는 정서(예; 고독감, 무가치감)
BB	우울	임상적 우울 증상(예; 슬픔, 울음, 고독감, 집중의 어려움)
CC	불안/긴장	일반화된 불안과 긴장(예; 신경질적이거나 걱정을 하거나 긴장되어 있거나 이완하기 어려움)
DD	외상후 스트레스	악몽, 재현, 불면증, 불안, 공황을 포함하는 외상적 스트레스 장애를 평가
EE	섭식장애	잠정적으로 위험한 식습관(예; 폭식, 관장, 절식, 불규칙적인 다이어트, 건강하지 못한 식사습관 등)
FF	분노통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고 통제하는 문제
GG	주의(인지) 결함	ADHD 증상(예; 주의와 집중의 어려움, 주의산만, 과제 조직화)
HH	강박증	반복적이거나 강박적인 사고와 같은 인지적 통제 증상을 평가
II	알코올 남용	개인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과 같은 문제적 음주 행동을 평가
JJ	약물남용	마리화나와 같은 불법적 약물의 사용과 처방 약물의 오사용

<표 2>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권해수 외, 2019)

척도명	문항수	검사-재검사 신뢰도	Cronbach's α	
성격양식	내향적	.74	.81	
	회피적	.78	.85	
	우울성	.81	.87	
	의존적	.72	.81	
	사교적	.81	.64	
	자기애적	.9	.81	.79
	반사회적	.9	.77	.67
	강박적	.9	.70	.55
	반항적	.8	.78	.68
	피학적	.7	.83	.82
	경계선	.8	.86	.84
	걱정영역	정신적 혼란	.8	.81
정체감문제		.8	.82	.79
원가족문제		.5	.77	.75
또래소외		.6	.75	.80
연인관계문제		.4	.53	.65
학업문제		.4	.63	.80
진로문제		.3	.76	.65
학대경험		.7	.61	.72
거주환경문제		.4	.69	.60
경제적 부담		.4	.80	.82
임상징후	종교문제	.4	.69	.69
	자살경향	.6	.82	.84
	우울	.8	.79	.84
	불안/긴장	.4	.61	.77
	외상후스트레스	.6	.81	.86
	섭식장애	.6	.70	.73
	분노통제	.7	.86	.79
	주의(인지)결함	.7	.82	.84
	강박증	.5	.76	.84
	알코올남용	.4	.86	.77
약물남용	.4	.64	.84	
전체			.78	

2.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학습무동기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Legault, Green-Demers 그리고 Pelletier(2006)가 개발한 척도를 조은문(2012)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무동기 상태의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학습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자한다. 학습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가치 신념,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무능력 신념, 자신이 학습에 필요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노력 신념,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무흥미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습무동기신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은문(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1, 하위요인별 무가치신념 .89, 무능력신념 .86, 무노력신념 .85, 무흥미신념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1, 무가치신념 .91, 무능력신념 .89, 무노력신념 .87, 무흥미신념 .88로 나타났다.

<표 3>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조은문, 2012)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무가치신념	학습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지 않음	1,6,11,16
무능력신념	학습에 필요한 능력이 없다고 인식함	3,5,12,13
무노력신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음	4,8,9,15
무흥미신념	학습과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	2,7,10,14

<표 4>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하위요인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무가치신념	4	.91
무능력신념	4	.89
무노력신념	4	.87
무흥미신념	4	.88
전체	16	.91

3.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대학생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자기 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이(2018)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목표 지향성, 독창성, 책임감, 독립성, 개방성, 자율성, 자기확신, 도전정신 등 총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주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은이, 2018). 정은이(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6, 하위요인별 목표 지향성 .88, 독창성 .86, 책임감 .86, 독립성 .82, 개방성 .83, 자율성 .81, 자기 확신 .83, 도전 정신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1, 하위요인별 목표 지향성 .90, 독창성 .91, 책임감 .89, 독립성 .90, 개방성 .90, 자율성 .89, 자기 확신 .89, 도전 정신 .89로 나타났다.

<표 5> 자기 주도성 척도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정은이, 2018)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목표 지향성	자신의 일과 진로에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1,2,3,4,5,6,7
독창성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일상의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려는 태도	8,9,10,11,12
책임감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와 의지	13,14,15,16,17
독립성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태도	18,19,20,21
개방성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타인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발전하려는 태도	22,23,24,25,26,27
자율성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일과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며, 매사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태도	28,29,30,31,32
자기 확신	자신의 가치와 자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태도	33,34,35,36,37
도전 정신	주변 상황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극복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태도	38,39,40,41

<표 6> 자기 주도성 척도 하위요인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목표 지향성	7	.90
독창성	5	.91
책임감	5	.89
독립성	4	.90
개방성	6	.90
자율성	5	.89
자기 확신	5	.89
도전 정신	4	.89
전체	41	.91

C.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자료는 지방 소재 C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사경고를 예방하고 학사경고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대학생 대상 다축검사인 MCCI를 활용한 선별 및 조기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 문항 및 측정 도구를 추가하였고, 2021년 2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중에 각각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중복 응답 자료는 제외하였다. URL로 접속한 연구 참여자에게 설문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와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았다.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 학생상담센터에서 설문을 완료한 학사경고자 전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재학생의 경우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지급절차에 연구자는 관여하지 않았다. 실태조사 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되는 학년, 성별, 학사경고 여부, 아르바이트 여부, 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출결관리, 학사경고 횟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MCCI 결과 등을 해당 C학교 학생상담센터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득한 이후에 제공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D.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 학사경고자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재학생과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기본 정보(학년, 성별, 아르바이트 여부)를 교차분석하고 학사정보(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출결관리, 학사경고 횟수)를 교차분석 및 t 검정해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유형을 분류하는 데 가장 중요한 MCCI 결과가 실제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학사경고와 연관성이 있고, 학사경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예측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선정해서 학사경고 유형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은 가까운 대상끼리 서로 묶어서 하나의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고, 비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놓고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이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군집 수를 찾고, 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최종군집을 확인하는 Hair와 Black(2000)의 2단계 군집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 학사경고자 유형에 따른 특성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군집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고, 각 군집이 어떤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아르바이트 여부, 출결관리,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및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점수, 학사경고 횟수, MCCI 척도별 PS에 대한 교차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é 사후검정으로 군집 간 차이의 의미를 확인했다(노경섭, 2019).

IV. 연구결과

A. 학사경고 여부에 따른 설문 참여자 기본정보 및 학사정보

학년, 성별, 아르바이트 여부가 각각 학사경고 여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x^2 값은 39.716, 156.938, 17.957로 나타났고, $p=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함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은 학사경고 여부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사경고를 받는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성별의 경우, 학사경고 발생자 성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남성이 학사경고를 받는 빈도가 더 높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재학생-학사경고자 차이검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일반재학생 설문 참여자 중 여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아르바이트 여부에서는 일반재학생은 178명(37%)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2명(53%)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학사경고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일정 수준의 성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학사경고자는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제적부담이 있는가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MCCI의 걱정영역 경제적부담 척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 설문 참여자 기술통계 및 차이 분석(기본정보)

(N=936)

구분	빈도(%)		총계	$x^2(p)$
	학사경고 여부 받은 적 없음	받은 적 있음		
학 년	1학년	104(38.8)	164(61.2)	39.716*** (0.000)
	2학년	130(50.8)	126(49.2)	
	3학년	113(52.3)	103(47.7)	
	4학년 이상	134(68.4)	62(31.6)	
	총계	481(51.4)	455(48.6)	

구분	빈도(%)			$x^2(p)$	
	학사경고 받은 적 없음	학사경고 받은 적 있음	총계		
성 별	남	129(26.8)	308(67.7)	437(46.7)	156.938*** (0.000)
	여	352(73.2)	147(32.3)	499(53.3)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아 르 바 이 트	하고 있음	178(37.0)	142(53.0)	320(42.7)	17.957*** (0.000)
	하지 않고 있음	303(63.0)	126(47.0)	429(57.3)	
	총계	481(100)	268(100)	749(100)	

$p^{***} < .001$

학사정보를 살펴보면 일반재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가 학사경고자의 전공학과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학사경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특성상 지도교수와 높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결관리는 C대학 규정을 기반으로 하나의 수업에서 2주 연속 결석을 했을 때 장기결석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따랐다. 전체 수업 중 특별한 사유로 공결 인정을 받지 않는 한, 결석 횟수가 수업의 1/4선을 넘었을 때 해당 과목에서 F학점을 받기 때문에 출결은 성적관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재학생은 장기결석 과목 0개에 해당하는 학생이 448명(93.1%)으로 가장 많았고, 학사경고자에서는 장기결석 과목 5개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54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학사경고 횟수는 학사경고 원인은 아니지만 기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일반재학생의 경우, 모두 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사경고자는 각각 1회 345명(75.8%), 2회 79명(17.4%), 3회 이상 31명(6.8%)으로 나타났다. 1회에 해당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학사경고 여부에 따른 차이 검정(학사정보)

(N=936)

구분	일반재학생 (학사경고 받은 적 없음)		학사경고자 (학사경고 받은 적 있음)		t	p
	M	SD	M	SD		
전공학과 만족도	3.69	0.910	3.08	0.884	10.338***	0.000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3.36	1.022	3.31	0.958	0.710	0.478
출결관리	0.10	0.427	2.72	1.684	-32.416***	0.000
학사경고 횟수	0.00	0.000	1.31	0.592	-48.499***	0.000

$p^{***} < .001$

B. 학사경고 여부에 따른 MCCI 프로파일 척도 P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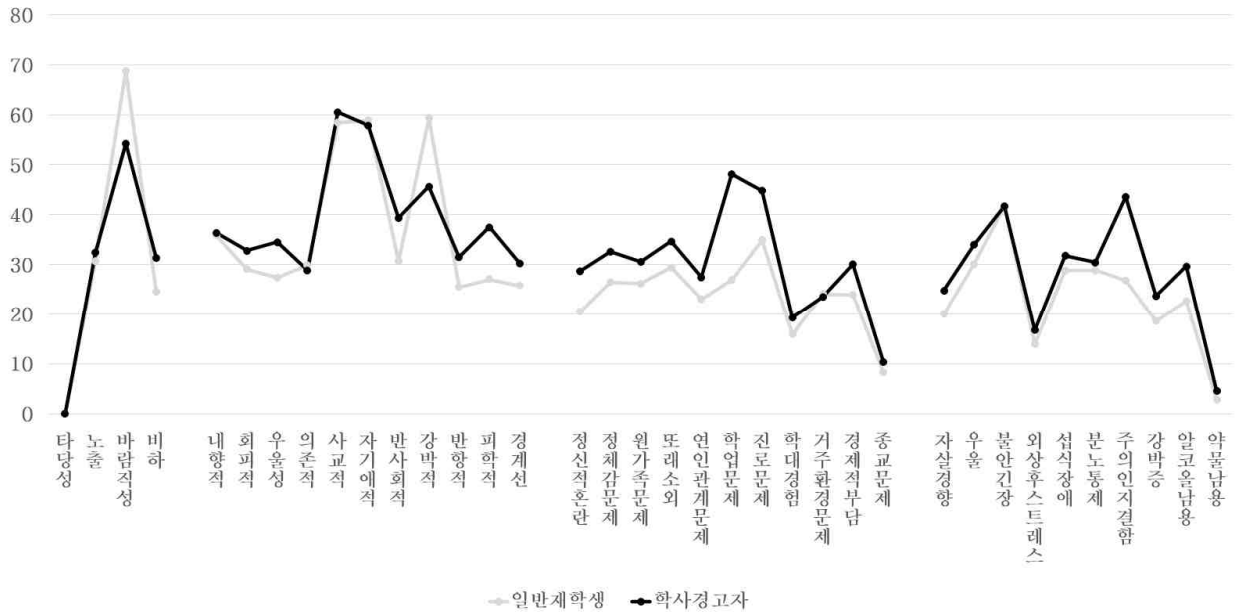
<표 9>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재학생과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학사경고자 간에 MCCI PS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척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성과 비하는 반응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다.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10점 이하, 90점 이상일 때 해석에 주의하고 면담할 때 참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p < 0.05$ 유의수준에서 학사경고자의 평균 점수가 높은 척도는 성격양식(반사회적, 반항적, 피학적), 걱정영역(정신적 혼란, 학업문제, 진로문제), 임상징후(주의(인지)결함, 알코올 남용) 8가지였다. $p < 0.01$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척도는 성격양식(우울성, 경계선), 걱정영역(정체감 문제, 또래 소외, 경제적 부담), 임상징후(자살경향, 강박증) 7가지로 나타났다. $p < 0.05$ 유의수준에서는 걱정영역(원가족 문제, 연인관계, 학대경험) 3가지 척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사경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MCCI 척도 상승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평균 비교 결과는 학사경고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보다 포괄적이지만 위배되지 않으며 유사하다.

<표 9> 일반재학생-학사경고자 MCCI PS 평균 비교

(N=936)

구분	일반재학생 (학사경고 받은 적 없음)		학사경고자 (학사경고 받은 적 있음)		t	p	
	M	SD	M	SD			
반응경향	타당성	0.06	0.242	0.07	0.252	-0.357	0.721
	노출	30.81	28.544	32.49	29.048	-0.891	0.373
	바람직성	68.87	27.664	54.29	29.867	7.751***	0.000
	비하	24.66	24.023	31.40	26.809	-4.055***	0.000
성격양식	내향적	35.88	29.731	36.35	30.528	-0.237	0.812
	회피적	29.11	27.638	32.84	30.287	-1.965	0.050
	우울성	27.54	30.114	34.53	32.043	-3.443**	0.001
	의존적	30.04	25.924	28.86	26.344	0.687	0.492
	사교적	58.86	22.379	60.50	22.762	-1.316	0.189
	자기애적	58.95	25.363	57.89	25.347	0.642	0.521
	반사회적	30.72	24.906	39.35	26.033	-5.183***	0.000
	강박적	59.41	28.033	45.67	27.342	7.587***	0.000
	반항적	25.56	24.298	31.49	25.466	-3.645***	0.000
	피학적	27.10	23.238	37.55	24.997	-6.630***	0.000
	경계선	25.83	23.327	30.27	24.167	-2.856**	0.004
걱정영역	정신적 혼란	20.54	23.234	28.70	26.358	-5.030***	0.000
	정체감 문제	26.52	29.158	32.60	32.144	-3.034**	0.002
	원가족 문제	26.28	25.119	30.58	26.796	-2.532*	0.011
	또래 소외	29.52	27.097	34.69	30.233	-2.756**	0.006
	연인관계 문제	23.10	24.996	27.50	26.770	-2.597*	0.010
	학업문제	26.98	27.741	48.13	32.105	-10.800***	0.000
	진로문제	34.97	32.210	44.80	34.612	-4.502***	0.000
	학대경험	15.95	20.402	19.31	22.484	-2.395*	0.017
	거주환경문제	24.10	25.789	23.48	26.367	0.363	0.717
	경제적 부담	24.02	28.182	30.06	32.055	-3.068**	0.002
	종교문제	8.36	19.108	10.45	21.815	-1.564	0.118
임상징후	자살경향	20.03	23.557	24.83	25.993	-2.963**	0.003
	우울	30.17	31.568	34.01	32.402	-1.834	0.067
	불안/긴장	41.73	34.107	41.71	36.041	0.012	0.990
	외상후스트레스	13.95	23.375	16.74	26.166	-1.723	0.085
	섭식장애	28.85	24.514	31.79	25.319	-1.804	0.072
	분노통제	28.94	26.447	30.47	26.553	-0.885	0.377
	주의(인지)결함	26.85	23.580	43.58	26.284	-10.260***	0.000
	강박증	18.61	24.882	23.71	26.408	-3.040**	0.002
	알코올남용	22.68	26.583	29.71	28.519	-3.902***	0.000
	약물남용	2.78	12.083	4.52	15.687	-1.906	0.057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일반재학생-학사경고자 MCCI PS 평균 비교

C. MCCI 프로파일 척도 간 상관

실제로 MCCI 프로파일 척도 간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범주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MCCI 성격양식 범주 척도 PS 간의 상관 (N=936)

MCCI 척도	1	2A	2B	3	4	5	6A	7	8A	8B	9
1 내향적	-										
2A 회피적	.77**	-									
2B 우울성	.73**	.86**	-								
3 의존적	.60**	.80**	.78**	-							
4 사고	-.55**	-.55**	-.43**	-.40**	-						
5 자기애적	-.42**	-.57**	-.48**	-.55**	.62**	-					
6A 반사회적	.45**	.42**	.48**	.38**	.00	.05	-				
7 강박	-.26**	-.32**	-.35**	-.24**	.14**	.30**	-.32**	-			
8A 반항적	.63**	.64**	.67**	.59**	-.25**	-.27**	.68**	-.36**	-		
8B 피학적	.66**	.80**	.80**	.71**	-.40**	-.54**	.48**	-.42**	.68**	-	
9 경계선	.71**	.77**	.84**	.73**	-.35**	-.43**	.51**	-.43**	.72**	.78**	-

p** < .01

<표 11> MCCI 걱정영역 범주 척도 PS 간의 상관 (N=936)

MCCI 척도	A	B	C	D	E	F	G	H	I	J	K
A 정신적 혼란	-										
B 정체감문제	.84**	-									
C 원가족문제	.65**	.64**	-								
D 또래소외	.73**	.70**	.58**	-							
E 연인관계문제	.64**	.62**	.50**	.60**	-						
F 학업문제	.60**	.52**	.42**	.53**	.41**	-					
G 진로문제	.63**	.64**	.50**	.56**	.44**	.56**	-				
H 학대경험	.70**	.67**	.64**	.60**	.67**	.43**	.45**	-			
I 거주환경문제	.57**	.53**	.51**	.50**	.42**	.43**	.45**	.52**	-		
J 경제적 부담	.38**	.34**	.36**	.34**	.31**	.42**	.32**	.33**	.39**	-	
K 종교문제	.29**	.32**	.23**	.26**	.28**	.19**	.21**	.33**	.27**	.21**	-

$p^{**} < .01$

<표 12> MCCI 임상징후 범주 척도 PS 간의 상관 (N=936)

MCCI 척도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AA 자살경향	-									
BB 우울	.81**	-								
CC 불안/긴장	.65**	.74**	-							
DD 외상후스트레스	.67**	.66**	.61**	-						
EE 섭식장애	.59**	.66**	.60**	.51**	-					
FF 분노통제	.53**	.58**	.59**	.51**	.55**	-				
GG 주의(인지)결함	.51**	.59**	.51**	.43**	.53**	.53**	-			
HH 강박증	.67**	.73**	.69**	.73**	.59**	.58**	.60**	-		
II 알코올남용	.25**	.28**	.24**	.25**	.32**	.28**	.27**	.26**	-	
JJ 약물남용	.38**	.32**	.28**	.43**	.25**	.30**	.23**	.37**	.27**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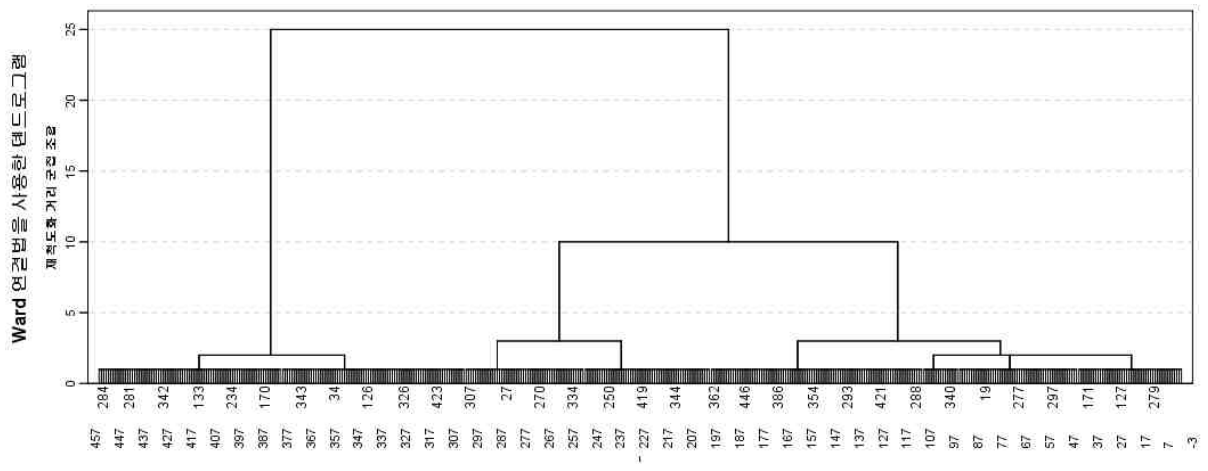
D. MCCI 프로파일 척도 PS에 따른 학사경고 예측요인

MCCI 결과에서 의미하는 특성이 학사경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사경고 횟수가 ‘받은 적 없음, 받은 적 있음’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참조집단은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재학생 집단이다. 각 척도는 범주별(성격양식, 걱정영역, 임상징후)로 묶어서 각각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 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확률이 낮아지는 음의 방향(B - 값)은 제외하고 확률이 높아지는 양의 방향(B + 값)을 채택하였다. MCCI 척도 중 학사경고를 받게 되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성격양식 3개 척도(우울성, 반사회적, 피학적), 걱정영역 2개 척도(정신적혼란, 학업문제), 임상징후 3개 척도(자살경향, 주의(인지)결함, 알코올남용)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구체적인 모형 적합 및 회귀식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E. 학사경고자 유형 분류

학사경고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총 8가지 요인(성격양식 3개 척도 우울성, 반사회적, 피학적, 걱정영역 2개 척도 정신적혼란, 학업문제, 임상징후 3개 척도 자살경향, 주의(인지)결함, 알코올남용)을 변수로 넣고 계층적 군집분석을 하였다. 각 군집의 빈도분석과 워드법(ward method)을 이용한 덴드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3> 계층적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의 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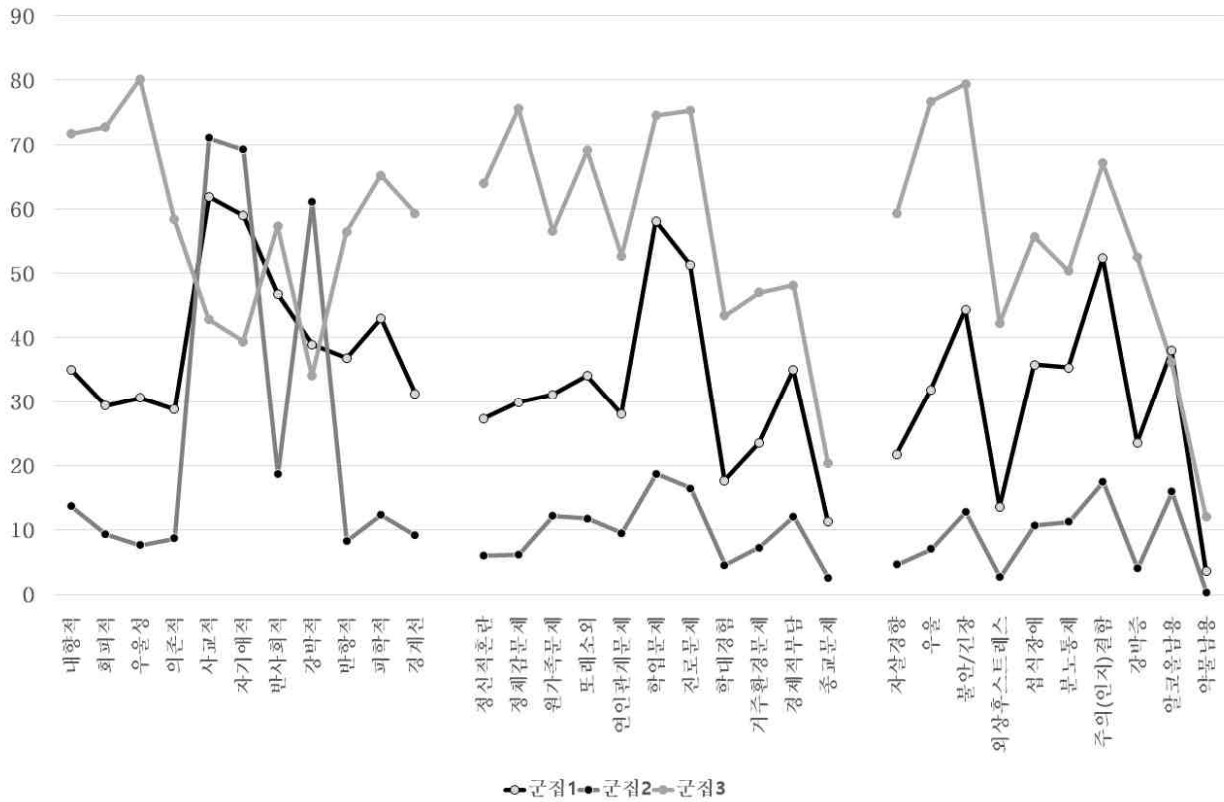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3개 군집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8가지 예측요인은 일반재학생과 학사경고자를 변별하는 주요 척도를 의미한다. 모든 학사경고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재학생과 학사경고자를 변별하는 요인으로 군집을 나눈 후, 그 군집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학년, 성별, 아르바이트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하였다. 더불어 MCCI 전체 척도, 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출결관리(2주 연속 장기결석 과목 개수), 학사경고 횟수, 학습무동기신념, 자기 주도성 점수는 분산의 동질성을 검정하여 일원변량분석으로 집단 평균 차이를 분석하고,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군집1은 ‘단기적 만족 추구 우세형’, 군집2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세형’, 군집3은 ‘우울/불안 부정적 정서 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13> 군집별 MCCI 평균점수

(N=455)

요인	군 집	군 집1 (N=182)	군 집2 (N=162)	군 집3 (N=111)	F	Scheffé
성 격 양 식	1 내향적	34.96	13.70	71.67	249.210***	2<1<3
	2A 회피적	29.37	9.41	72.69	405.407***	2<1<3
	2B 우울성	30.59	7.67	80.20	690.790***	2<1<3
	3 의존적	28.80	8.72	58.36	240.204***	2<1<3
	4 사교적	61.91	71.04	42.81	65.862***	3<1<2
	5 자기애적	58.99	69.25	39.48	57.029***	3<1<2
	6A 반사회적	46.75	18.72	57.32	134.519***	2<1<3
	7 강박적	38.99	61.10	34.08	50.093***	1,3<2
	8A 반항적	36.87	8.35	56.45	273.475***	2<1<3
	8B 피학적	43.04	12.41	65.26	481.984***	2<1<3
	9 경계선	31.25	9.20	59.39	379.436***	2<1<3
	격 정 영 역	A 정신적 혼란	27.36	6.02	64.00	536.596***
B 정체감문제		29.88	6.15	75.67	487.766***	2<1<3
C 원가족문제		31.10	12.17	56.59	149.930***	2<1<3
D 또래소외		34.05	11.80	69.12	246.503***	2<1<3
E 연인관계문제		28.08	9.53	52.76	137.696***	2<1<3
F 학업문제		58.15	18.75	74.56	229.214***	2<1<3
G 진로문제		51.34	16.53	75.33	179.458***	2<1<3
H 학대경험		17.72	4.57	43.43	175.298***	2<1<3
I 거주환경문제		23.50	7.33	47.04	110.839***	2<1<3
J 경제적 부담		34.99	12.08	48.23	56.600***	2<1<3
K 종교문제		11.40	2.60	20.35	24.354***	2<1<3
임 상 정 후	AA 자살경향	21.78	4.67	59.26	418.304***	2<1<3
	BB 우울	31.93	7.07	76.72	465.438***	2<1<3
	CC 불안/긴장	44.38	12.87	79.41	224.313***	2<1<3
	DD 외상후스트레스	13.64	2.72	42.29	117.000***	2<1<3
	EE 섭식장애	35.85	10.80	55.76	204.095***	2<1<3
	FF 분노통제	35.40	11.31	50.37	114.772***	2<1<3
	GG 주의(인지)결함	52.39	17.56	67.12	326.216***	2<1<3
	HH 강박증	23.62	4.10	52.47	214.313***	2<1<3
	II 알코올남용	38.00	15.94	36.23	33.724***	2<1,3
	JJ 약물남용	3.64	0.37	12.02	20.213***	1,2<3

p***<.001, 1=군집1, 2=군집2, 3=군집3



<그림 4> 군집별 MCCI 평균점수

<표 13>의 MCCI 척도 평균점수를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각 군집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척도와 비교해서 평균 점수가 높은 척도 순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14>다. <표 14>에서 군집3의 평균점수 50점 이하의 척도가 발생하는 23순위 부터 32순위는 생략하였다.

<표 14> 군집별 MCCI 평균점수 순위 (N=455)

군집 순위	군 집1(N=182)	군 집2(N=162)	군 집3(N=111)
1순위	사교적(성격양식)	사교적(성격양식)	우울성(성격양식)
2순위	자기애적(성격양식)	자기애적(성격양식)	불안/긴장(임상징후)
3순위	학업문제(걱정영역)	강박적(성격양식)	우울(임상징후)
4순위	주의(인지)결함(임상징후)	학업문제(걱정영역)	정체감문제(걱정영역)
5순위	진로문제(걱정영역)	반사회적(성격양식)	진로문제(걱정영역)

군집 순위	군 집1(N=182)	군 집2(N=162)	군 집3(N=111)
6순위	반사회적(성격양식)	주의(인지)결함	학업문제(걱정영역)
7순위	불안/긴장	진로문제(걱정영역)	회피적(성격양식)
8순위	피학적(성격양식)	알코올남용(임상징후)	내향적(성격양식)
9순위	강박적(성격양식)	내향적(성격양식)	또래소외(걱정영역)
10순위	알코올남용(임상징후)	불안/긴장(임상징후)	주의(인지)결함(임상징후)
11순위	반항적(성격양식)	피학적(성격양식)	피학적(성격양식)
12순위	섭식장애(임상징후)	원가족문제(걱정영역)	정신적 혼란(걱정영역)
13순위	분노통제(임상징후)	경제적 부담(걱정영역)	경계선(성격양식)
14순위	경제적 부담(걱정영역)	또래소외(걱정영역)	자살경향(임상징후)
15순위	내향적(성격양식)	분노통제(임상징후)	의존적(성격양식)
16순위	또래소외(걱정영역)	섭식장애(임상징후)	반사회적(성격양식)
17순위	우울(임상징후)	연인관계문제(걱정영역)	원가족문제(걱정영역)
18순위	경계선(성격양식)	회피적(성격양식)	반항적(성격양식)
19순위	원가족문제(걱정영역)	경계선(성격양식)	섭식장애(임상징후)
20순위	우울성(성격양식)	의존적(성격양식)	연인관계문제(걱정영역)
21순위	정체감문제(걱정영역)	반항적(성격양식)	강박증(임상징후)
22순위	회피적(성격양식)	우울성(성격양식)	분노통제(임상징후)

F. 학사경고자 유형별 특성

군집과 학년 간 빈도를 살펴보면 군집2에는 1학년이 가장 많이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과 아르바이트 여부는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 15> 학사경고자 유형별 차이(기본정보)

(N=455)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군집1 (N=182)	군집2 (N=162)	군집3 (N=111)		
학 년	1학년	60(33.0)	71(43.8)	33(29.7)	164(36.0)	13.505* (0.036)
	2학년	56(30.8)	30(18.5)	40(36.0)	126(27.7)	
	3학년	42(23.1)	36(22.2)	25(22.5)	103(22.6)	
	4학년 이상	24(13.2)	25(15.4)	13(11.7)	62(13.6)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성 별	남	124(68.1)	116(71.6)	68(61.3)	308(67.7)	3.249 (0.197)
	여	58(31.9)	46(28.4)	43(38.7)	147(32.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아 르 바 이 트	하고 있음	59(58.4)	52(52.0)	31(46.3)	142(53.0)	2.448 (0.294)
	하지 않고 있음	42(41.6)	48(48.0)	36(53.7)	126(47.0)	
	총계	101(100)	100(100)	67(100)	268(100)	

$p^* < .05$, $p^{**} < .01$, $p^{***} < .001$

전공학과 만족도($F=14.704$, $p=0.000$), 지도교수관계 만족도($F=10.034$, $p=0.000$), 학사경고 횟수($F=4.263$, $p=0.015$)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출결관리(2주 연속 장기결석 과목 개수($F=0.340$, $p=0.712$))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 없이 전체 군집에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는 군집2가 높았고, 학사경고 횟수는 군집2의 누적 횟수가 적다. 출결관리(2주 연속 장기결석 과목 개수)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평균 2개 과목 이상에서 장기결석이 이루어졌다. 학사경고자의 경우, 특정과목만 결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출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학사경고자 유형별 차이(학사정보)

(N=455)

요인	군집 (N=182)	군집1 (N=162)	군집2 (N=111)	군집3 (N=111)	F	Scheffé
전공학과 만족도		2.97	3.36	2.84	14.704***	1,3<2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3.24	3.61	2.97	10.034***	1,3<2
출결관리		2.70	2.65	2.87	0.340	-
학사경고 횟수		1.34	1.21	1.31	4.263*	2<1,3

$p^* < .05$, $p^{***} < .001$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군집별 학사경고자 유형별 학습무동기 신념 척도 평균 점수와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평균 점수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무동기 신념은 군집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군집1, 가장 낮은 집단은 군집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주도성은 군집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군집1, 가장 낮은 집단은 군집3이었다. 학습무동기신념은 학습동기를 저해하고, 자기 주도성은 학습동기를 강화하는 변인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인데, 그 관계성이 군집 간 차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7> 학사경고자 유형별 학습무동기신념, 자기 주도성 평균점수 차이

(N=455)

요인	군집 (N=182)	군집1 (N=162)	군집2 (N=111)	군집3 (N=111)	F	Scheffé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42.57	31.97	53.10	70.266***	2<1<3
하 무가치신념		8.03	6.58	11.10	34.146***	2<1<3
위 무능력신념		10.69	7.77	13.37	70.978***	2<1<3
요 무노력신념		11.73	8.43	14.10	65.950***	2<1<3
인 무흥미신념		12.12	9.19	14.52	44.561***	2<1<3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138.51	156.34	129.18	27.611***	3<1<2
목표지향성		20.77	25.48	19.63	27.822***	1,3<2
하 독창성		13.92	15.94	13.94	5.722**	1,3<2
위 책임감		16.53	19.28	14.75	35.173***	3<1<2
요 독립성		14.91	16.05	14.42	6.521**	1,3<2
인 개방성		23.46	24.63	21.88	9.194***	3<1,2
자율성		17.09	19.19	15.91	18.312***	1,3<2
자기확신		18.46	20.28	16.46	24.012***	3<1<2
도전정신		13.38	15.49	12.19	23.487***	1,3<2

$p^{**} < .01$, $p^{***} < .001$, 1=군집1, 2=군집2, 3=군집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MCCI 유병율 점수로 대학생 학사경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서 학사경고자 유형을 군집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소재 C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사경고를 예방하고 학사경고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 기반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MCCI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재학생과 학사경고자 간에 구분되는 예측요인으로 군집을 분류하였다.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재학생과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학사경고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MCCI PS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학사경고 예측요인 8가지를 찾아냈다. 성격양식 3개 척도(우울성, 반사회적, 피학적), 걱정영역 2개 척도(정신적혼란, 학업문제), 임상징후 3개 척도(자살경향, 주의(인지)결함, 알코올남용)가 이에 해당한다. 예측 확률은 주의(인지)결함이 가장 높았고, 피학적, 학업문제, 우울성, 자살경향, 반사회적, 알코올남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재학생과 학사경고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기 때문에 스크리닝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각 PS가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필요한 학사경고자를 특성별로 군집하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학사경고자 455명을 3개 범주(성격양식, 걱정영역, 임상징후) 8가지 요인을 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학사경고자 간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군집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사경고 원인(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 아르바이트 여부, 출결관리,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및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점수 등) 및 MCCI PS의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사경고자 간에도 군집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군집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각각 군집1 ‘단기적 만족 추구 우세형’, 군집2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세형’, 군집3 ‘우울/불안 부정적 정서 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군집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군집1 182명(40%), 군집2 162명(35.6%), 군집3 111명(24.4%)으로 분포되어 있다.

각 군집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군집1 ‘단기적 만족 추구 우세형’은 사교적(성격양식)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자기애적(성격양식), 학업문제(걱정영역), 주의(인지)결함(임상징후), 진로문제(걱정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학사경고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형적인 학사경고자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외향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며, 기분의 변화가 많다. 신기하고 흥분되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혼자서 조용히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을 쉽게 지루해할 수 있다. 자신의 취약한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서 도움 요청 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성공하고 칭찬받는 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때때로 규칙, 윤리 및 사회적인 예의범절을 어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만족을 지연시키며 최종적인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성격양식과 맞물려서 교과목의 요구와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고 하는 학업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과 과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로 인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못 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가족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군집1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정서와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는 주의(인지)결함(임상징후) 척도 상승을 통해 나타난다. 주의와 집중의 문제가 있거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이 척도의 점수가 높다.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고 일이나 과제를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권해수 외, 2019). 다른 선행연구 요인을 함께 살펴보면 전공학과 만족도, 지도교수관계 만족도가 낮다. 생활습관의 문제로 출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시 학사경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학습 동기가 낮지만 학습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학습을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지지하고 이끌어서 학습동기를 향상시켜주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군집1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교수, 학교 동기 및 선후배, 전문상담사와 같은 지지자와 함께 ‘코칭 중심 동기강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혼자서는 스스로 자신의 충동성을 통제하거나 만족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 출결관리, 목표설정 및 수행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습관적 자기통제 불능, 동기 부재, 미루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다회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남상은, 유기웅, 2017).

군집2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세형’은 사교적(성격양식)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기애적(성격양식), 강박적(성격양식), 학업문제(걱정영역), 반사회적(성격양식)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1의 성격양식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강박적(성격양식)의 척도 상승이 구분되는 특성이다. 이들은 학사경고자가 자유분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책임감 있고, 근면하고, 규칙과 규정을 따르고 지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군집2는 1학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전공학과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고, 지도교수관계 만족도도 평균 3.61점으로 일반재학생(평균 3.36점)보다 높다. 학습무동기신념이 높지 않고, 자기 주도성도 보통 수준이다. 다만 융통성이 없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지각한 결점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겁낼 수 있다. 수행에 대한 지침이 분명한 구조화된 환경을 좋아한다. 과제와 목표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분방하고 비구조화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한다(권해수 외, 2019).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다른 학습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교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단계부터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의 대처양식으로 대학교에서도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비대면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더욱 큰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탓하거나 전전공공하며, 실수나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김중학, 최보영, 2016). 목표가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하나의 실수에도 이번 학기는 망했으니까 다음 학기에 잘해야겠다는 식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세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팅 중심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대학생활과 진로에 대해서 학년에 맞는 구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컨설팅을 받게 되면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좌절감을 겪는 것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에는 시간관리, 노트필기 기법, 글쓰기 과정(의사소통과정, 창의력 학습과정 등) 등의 워크숍, 튜터링(멘토링) 및 스터디 그룹, learning tips 제공, 예비대학생을 위한 학습지원과정 등이 있다. 더불어 학습(인지)양식, 학습전략 등의 학습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에 적합한 학습방법과 전략에 대한 조언 및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윤소정, 2013).

군집3 ‘우울/불안 부정적 정서 우세형’은 우울성(성격양식)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불안/긴장(임상징후), 우울(임상징후), 정체감문제(걱정영역), 진로문제(걱정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MCCI 평균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고, 유의하게 MCCI PS 범위별 점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약한 성격양식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인 걱정영역이 임상징후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살경향도 높은 수준이며, 대학 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래관계 문제에서도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학과 만족도와 지도교수관계 만족도가 낮고, 출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군집 중 학습무동기신념이 가장 높고, 자기 주도성은 가장 낮다. 군집3은 학사경고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대학생활 부적응 유형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다. 사회적으로 철수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제한적 관계를 좋아한다. 변화가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민감한 속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항시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일상적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력과 열의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수줍어하고 불편해한다(권해수 외, 2019). 토론, 발표, 조별과제와 같은 집단활동이나 대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울/불안 부정적 정서 우세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 중심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상담전문가의 1:1 밀착형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활성화 정서(즐거움, 희망, 자부심)는 학습 동기 향상시키고 학습의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 비활성화 정서(지루함, 절망)는 동기와 주의집중의 저하를 초래해 학습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외현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억제전략을 사용할수록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이인숙, 2014) 상담을 통해 안전한 장면에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일반적인 사회 장면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사경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선제 개입을 위해서는 학사경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군을 사전에 선별하고, 학기 중에 개입해서 필요시 개별적인 전문상담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학생들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활용할 경우,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습 관련 검사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자살, 대학생활적응 등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개의 척도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발생한다. 또한 표준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절단점이 없어서 원점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학사경고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재학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했을 때 학사경고 위험군을 선별하고, 학사경고자 특성을 MCCI 프로파일을 근거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군집별 학사경고자 특성을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언함으로써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사경고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소재 C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사경고자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대상자가 경험한 학사경고 시기가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속한다. 특정 시점, 특정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특성을 대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COVID-19가 종식되고,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정상적인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재학생-학사경고자를 스크리닝하는 예측요인의 경우, MCCI를 학사경고가 발생하기 전에 학기 중에 실시한 것이 아니라, 학사경고가 발생하고 다음 학기 등록 전에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에는 실제로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하여 실제로 8가지 예측요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MCCI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나 증상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형도구 또는 상담용 평가도구다. 이 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학사경고자의 면담을 통해 프로파일로 정리된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사경고자 선별 및 관리가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221-242.
- 교육부 (2019).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 권해수 (2016).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학사경고 결정 요인. 인간이해, 37(2), 29-46.
- 권해수, 천성문, 김지혜, 황순택, 홍상환 (2019). 밀론 대학생 성격검사(MCCI) 매뉴얼. 대구:한국심리주식회사.
- 권혁재 (2012). 대학생의 학습부진 원인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찬 (2013).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종두 (2015). 학사경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인터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7-83.
- 김종두 (2016). 학사경고 학생들의 면담과 학업성취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3), 253-265.
- 김중학, 최보영 (2016).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1), 25-42.
- 남상은, 유기웅 (2017).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실행연구(Action Research). 교양교육연구, 11(1), 281-311.
- 남영옥, 이대형 (2016). 학사경고 원인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3), 131-151.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 SPSS&AMOS(개정증보판).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혜숙 (2019).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별 학습지원 요구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20), 1141-1164.
- 대학알리미 (2020). 2020년 중도탈락학생 현황. <http://www.academyinfo.go.kr/>
- 박알뜨리, 이지연, 이희원 (2020).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학생들의 학업부진 원인과 대처 방안 탐색: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3(1), 10-25.

- 박태환, 송운정, 최태영 (2019). 대학 재정건전성이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0), 865-879.
- 배상확 (2014). 학습부진 대학생의 실태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준모 (2019). 국내 학습부진 대학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493-505.
- 윤소정 (2013). 학습부진 대학생을 위한 예방적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5(3), 643-660.
- 윤영란 (2021). 대학생 학사경고자를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7(8), 281-290.
- 이대식, 남미란, 김양주, 류경우 (2011). 학습부진 유형 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장애연구, 7(3).
- 이문향, 박우람, 홍상황 (2021). 밀론 대학생 성격검사(MCCI)의 교차 타당화: 교대생을 대상으로. 교육혁신연구, 31(3), 315-346.
- 이용진, 양현정, 조성희 (2017). 학사경고생의 특성 변인과 교육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탐색. 교육방법연구, 29(1), 161-184.
- 이은정, 송영수, 김지하, 오수현 (2020).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4년제 대학 중도탈락률 예측요인 탐색: 대학 수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6(1), 191-219.
- 이인숙 (2014). 참여적 실시간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정서, 정서 조절전략이 학습 참여 및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Facebook환경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0(3), 413-442.
- 이주영, 임수진, 좌현숙 (2016). 학사경고자들의 학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8-118.
- 이지은, 황현우 (2018). 대학생 학사경고자의 학업부진 유형 분류: 지방 사립 A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327-351.
- 이지희, 신호정 (2017). 대학 입학 성적우수 학생들의 학사경고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183-201.
- 이훈병 (2016). 대학에서 학업부진 학습자 진단을 위한 주요인 분석. 인문사회21, 7(3), 653-672.
- 임이랑 (2019).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무기력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교양교육연구, 13(5), 253-272.

-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 행동 간의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보라, 강승희, 윤소정 (2015). 학사경고 경험 대학생의 학업적 특성과 집단 학습컨설팅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137-160.
- 전호정 (2017).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반복적 학사경고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이 (2018).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703-730.
- 정제영, 선미숙, 정민지 (2015).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57-76.
- 조은문 (2012). 학습무동기신념이 높은 중학생을 위한 동기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문, 이종연 (2012). 학습무동기신념이 높은 중학생을 위한 동기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 9(1), 85-110.
-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 학사경고 여대생의 학업성취 실패 및 지속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47-69.
- 진달래(2015). 학습부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e-포트폴리오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Fisher, T. D. (1995). Self-directedness in adult vocational education students: Its role in learning and implications for instruction. Journal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12, 27-35.
- Guglielmino, L. M., & Guglielmono, P. J. (1991). Self-directed learning in business and industry. An information age imperative. In H. B. Long & Associates.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gault, L., Green-Demers, I., & Pelletier, L. (2006).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a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67-582.

Long, H. B. (1994). Challenging some Myth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In *New Idea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by H. B. Long et al. pp. 1-14.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Millon, T. (2004). *Millon Index of Personality Styles Revised(MIPS Revised)* manual. Minneapolis, MN: NCS Pearson.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Smith, C. P., & Winterbottom, M. T. (197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8(3), 379-391.

부 록

부록 1. 학습무동기신념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학습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2 나는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조금 게으르다.	1	2	3	4	5
5 나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모른다.	1	2	3	4	5
6 공부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	1	2	3	4	5
7 나는 공부를 싫어한다.	1	2	3	4	5
8 나는 공부할 때 의욕이 없다.	1	2	3	4	5
9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싫다.	1	2	3	4	5
10 내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일 똑같다.	1	2	3	4	5
11 나는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학교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1	2	3	4	5
13 내 능력으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잘할 수 없다.	1	2	3	4	5
14 나는 학교수업에 흥미가 없다.	1	2	3	4	5
15 나는 공부하는 데 쏟을 힘이 없다.	1	2	3	4	5
16 공부는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부록 2. 대학생 자기 주도성 검사

다음은 여러분의 학습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장기적인 목표와 연관시킬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며 살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낸다.	1	2	3	4	5
5 나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1	2	3	4	5
6 나는 진로나 학업과 관련하여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1	2	3	4	5
7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몰입해서 한다.	1	2	3	4	5
8 나는 기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새롭고 독특한 내용을 제시할 때가 많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할 때가 많다.	1	2	3	4	5
10	나는 평범한 일상이 아닌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즐기는 삶이 좋다.	1	2	3	4	5
11	나는 평소에 어떤 문제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때가 많다.	1	2	3	4	5
12	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배워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본다.	1	2	3	4	5
13	나는 맡은 일이나 과제 등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낸다.	1	2	3	4	5
14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그 집단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낸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낸다.	1	2	3	4	5
16	나는 준비를 철저히 해 과제를 기한 내 제출한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8	나는 주변의 강요가 아닌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생각하고 결정한다.	1	2	3	4	5
19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1	2	3	4	5
20	성인이 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나는 토론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주장도 받아들인다.	1	2	3	4	5
23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한다.	1	2	3	4	5
25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26 나는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1	2	3	4	5
27 나는 다른 문화와 사회 현상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1	2	3	4	5
28 나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에 대비해 스스로 준비를 잘 한다.	1	2	3	4	5
29 나는 진로나 학업 등 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의 결정은 스스로 한다.	1	2	3	4	5
30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한다.	1	2	3	4	5
31 나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는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나는 집단 활동을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33 나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을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	1	2	3	4	5
34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면 내 의지대로 일을 추진한다.	1	2	3	4	5
35 나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해 있을 것을 믿는다.	1	2	3	4	5
36 나는 내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37 나는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1	2	3	4	5
38 나는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1	2	3	4	5
39 나는 어떤 일에 실패하면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 다시 도전한다.	1	2	3	4	5
40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먼저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	1	2	3	4	5
41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1	2	3	4	5

부록 3. MCCI 학사경고 주요 척도별 특성(권해수 외, 2019)

연번	척도명	내용
1	4 사교적 (sociable)	<p>사교적인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말을 많이 하고 외향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다채롭다. 이들은 자발적이고 기민하고 진취적이고 열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 진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욕구와 소망을 드러낼 때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자신의 기분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들은 좋고 싫음의 변화가 심하고 알팍하고 진실하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은 신기하고 흥분되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다른 성격양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게 될 때 불편해한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일하는 환경에서 수행을 잘 하고 그런 장면에서 눈길을 끄는 양식을 나타낸다. 대중들과 쉽게 상호작용한다.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다. 활기가 있고 낙천적이지만 관심과 기분이 쉽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다. 이들은 흥미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충족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우선시 한다. 이들의 태도나 감정은 극도로 흥분되었다가도 이내 부정적인 태도로 급격히 바뀌기도 한다. 때때로 분노폭발을 나타내는데 기분 좋을 때 보이는 반응처럼 길지는 않다. 분위기가 바뀌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쾌활한 성격으로 되돌아간다.</p>
2	5 자기애적 (confident)	<p>이런 성격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차분한 사람으로 보여 진다. 이들은 자신의 중요성과 특별한 재능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을 수 있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 사회적으로 매우 적극적일 수 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공감을 표현하지 못하면 자기도취적이게 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는 가치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욕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적절감과 비판과 거부에 대한 민감</p>

연번	척도명	내용
		<p>성을 감추기 위해 확고부동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의 취약한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의 취약성이 노출되거나 손상되었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방해하거나 착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학교장면에서 이들은 타인에 대한 자신감이 유지되는 한 공감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확신이 강하고 재치가 있고 매력적이어서 리더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이들은 혼자서 일하는 장면과 사회적 장면에서 모두 잘 하지만, 집단 속에서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동등한 위치가 주어지거나 나서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러한 역할을 거부할 수 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이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성공하고 칭찬받는 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때때로 규칙, 윤리 및 사회적인 예의범절을 어길 수 있다.</p>
3	7 강박적 (conscientious)	<p>책임감 있고 근면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강박적인 사람들은 규칙과 규정을 따르고 지키려고 한다. 질서욕구가 있고 관습적인 관심을 나타낸다. 규칙을 준수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대인관계 양식이 형식적이고 감정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갑고 무관심하고 억제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사회적 예의범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지각한 결점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할 수 있고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신뢰롭고 부지런하다. 의무감이 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협조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지속적이며 감독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다. 수행에 대한 지침이 분명한 구조화된 업무환경을 좋아한다. 성취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면 조직화 기술과 강한 직업윤리를 적용하여 일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이들은 성실하고 어렵거나 반복적인 과제를 기꺼이</p>

연번	척도명	내용
4	2B 우울성 (Dejected)	<p>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을 많이 받는다. 책임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수와 친구들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을 잘 해내는 팀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집단 장면에서도 일을 잘 수행한다. 협조적이고 다른 사람의 지도를 잘 따른다. 과제와 목표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자유분방하고 비구조화되어 있을 경우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한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관점을 주장하기 어려워한다. 열심히 일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너무 과제지향적이고 감정표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비인간적이고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p> <p>이런 성격양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흔히 우울해 보이고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다. 사회적으로 철수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제한적 관계를 좋아한다. 동료 학생들과 가족들은 이들이 심각하고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신중하고 느리다고 본다. 우울성 성격양식인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과제와 환경에 대해 접촉을 제한한다. 이들은 비판적이고 위로하기 힘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주의인 것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때때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안심을 받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수용하기 어렵다. 회피적인 성격과 마찬가지로 우울성 성격인 사람들은 혼자서 일하거나 자신이 잘 아는 소집단에서 일하기를 선호한다. 이들은 변화가 별로 없는 환경에서 분명한 과제가 주어지고 자신의 민감한 속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p>
5	6A 반사회적 (Unruly)	<p>이들은 충동적이고 고집이 세고 지배적이다. 세상은 가혹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착취해야 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규칙을 변경하거나 여기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집요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p>

연번	척도명	내용
6	8B 피학적 (Denigrated)	<p>구하고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민감성 부족을 간과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수행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은 강하고 독립적인 정신의 소유자여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돋보일 수 있다. 이들은 집단적 장면을 참아낼 수 있지만 공동체의 규칙과 규정을 벗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자기지향적이고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욕구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을 경계한다. 자신이 순종적으로 행동하거나 공손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p> <p>이런 성격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심없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다가도 거부적이고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을 수 있다. 공동체감을 추구하고 집단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헌신과 친절하고 배려적이고 상냥한 경향에 대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항상 관대하고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서 수용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어색해하고 불편해 하는데, 이는 낮은 자존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들은 순종적인 것이 결점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적인 면 이면에는 매우 회의적인 경향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은 흔히 울적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은 서투른 측면이 있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지지와 확신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욕구는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기대 때문에 약화될 수 있다.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았다고 귀인하기도 한다. 이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과 지지가 잘못되었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p>

연번	척도명	내용
		해석하기도 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7	A 정신적 혼란 (Mental health upset)	이 척도는 학생이 현재 경험하는 불만족과 불행감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울적하다고 느낀다. 일상적 요구를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고 불안과 우울은 경험할 수 있다. 이 척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불행감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느낌은 반드시 특정 영역의 걱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8	F 학업문제 (Academic concerns)	이 척도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수강하는 교과목의 요구와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고한다. 교과목과 과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9	AA 자살경향 (Suicidal tendencies)	이 척도는 2종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자살사고와 의도, 다른 하나는 자기 손상 사고를 동반하는 정서(고독감, 무가치감)를 평가한다. 이 척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살사고와 전반적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자살 위험이 높다. 자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검사자들은 이전의 자살시도 경험, 자살 계획과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10	GG 주의(인지) 결함 (Attention (Congnitive) deficits)	이 척도는 ADHD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몇 가지 증상을 측정한다. 대학에서 주의와 집중의 문제가 있거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이 척도의 점수가 높다.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고 일이나 과제를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과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1	II 알코올 남용 (Alcohol abuse)	이 척도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문제시 되는 음주행동을 나타낸다. 이들은 개인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음할 수 있고 만취될 때까지 마시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차별해지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고 음주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일부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술을 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술을 덜 마셔야 하거나 금주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다.

부록 4. MCCI 프로파일 척도 PS에 따른 학사경고 예측요인

구분	학사경고 여부					
	받은 적 있음(N=455)					
	B	S.E.	Wald	OR(95%CI)	p	
성 격 양 식	내향적	-0.014	0.005	9.899**	0.986	0.002
	회피적	-0.002	0.006	0.137	0.998	0.711
	우울성	0.016	0.006	7.503**	1.016	0.006
	의존적	-0.030	0.005	29.084***	0.971	0.000
	사교적	0.003	0.005	0.557	1.003	0.455
	자기애적	0.001	0.005	0.018	1.001	0.893
	반사회적	0.009	0.004	4.484*	1.009	0.034
	강박적	-0.013	0.003	18.397***	0.987	0.000
	반항적	-0.001	0.005	0.066	0.999	0.797
	피학적	0.041	0.006	45.238***	1.042	0.000
	경계선	-0.012	0.007	3.406	0.988	0.065
	상수항	0.084	0.392	0.046	1.088	0.830
-2 Log Likelihood = 1135.038						
$\chi^2=161.811^{***}(df=11, p=.000)$						
Cox & Snell R ² .159						
격 정 영 역	정신적혼란	0.016	0.006	6.203**	1.016	0.013
	정체감문제	-0.009	0.005	3.482	0.991	0.062
	원가족문제	0.002	0.004	0.371	1.002	0.543
	또래소외	-0.008	0.004	3.623	0.992	0.057
	연인관계문제	0.000	0.004	0.006	1.000	0.936
	학업문제	0.029	0.003	79.740***	1.030	0.000
	진로문제	0.001	0.003	0.055	1.001	0.815
	학대경험	-0.002	0.005	0.075	0.999	0.785
	거주환경문제	-0.018	0.004	24.053***	0.982	0.000
	경제적부담	0.000	0.003	0.000	1.000	0.988
	종교문제	0.004	0.004	1.253	1.004	0.263
	상수항	-0.698	0.128	29.653	0.498	0.000
-2 Log Likelihood = 1147.033						
$\chi^2=149.816^{***}(df=11, p=.000)$						
Cox & Snell R ² .148						

구분		학사경고 여부				
		받은 적 있음(N=455)				
		B	S.E.	Wald	OR(95%CI)	p
입 상 징 후	자살경향	0.013	0.005	5.403*	1.013	0.020
	우울	-0.012	0.005	5.553*	0.989	0.018
	불안/긴장	-0.010	0.003	8.587**	0.990	0.003
	외상후스트레스	0.002	0.005	0.139	1.002	0.710
	섭식장애	-0.006	0.004	1.916	0.994	0.166
	분노통제	-0.012	0.004	9.587**	0.988	0.002
	주의(인지)결함	0.043	0.004	102.809***	1.044	0.000
	강박증	0.000	0.005	0.004	1.000	0.947
	알코올남용	0.008	0.003	7.042**	1.008	0.008
	약물남용	0.002	0.006	0.068	1.002	0.794
	상수항	-0.766	0.138	30.721	0.465	0.000
-2 Log Likelihood = 1133.288						
$\chi^2=163.561^{***}(df=10, p=.000)$						
Cox & Snell R ² .160						

$p^* < .05$, $p^{**} < .01$, $p^{***} < .001$, , 유의미한 예측요인

학사경고 예측요인을 탐색적으로 찾아보기 위해 MCCI PS를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격양식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 ($\chi^2=161.811^{***}$, $df=11$, $p=.000$), 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인 학사경고를 15.9% 설명하였다(Cox & Snell R² .159). 설명량의 경우, 학사경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기 어렵다.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수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양식에서는 우울성(Wald=7.503, $p>.01$), 반사회적(Wald=4.484, $p>.05$), 피학적(Wald=45.238, $p>.001$) 척도 PS가 1만큼 상승하는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확률이 각각 1.02배, 1.01배, 1.04배 높아지며, 반대로 내향적(Wald=9.899, $p>.01$), 의존적(Wald=29.084, $p>.001$), 강박적(Wald=18.397, $p>.001$) 척도 PS가 1만큼 상승하면 학사경고로 이어질 확률이 각각 0.99배, 0.97배, 0.99배 낮아진다. 성격양식 모델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OR = \ln [P/(1-P)] = (0.084) - (0.014 * \text{내향적}) - (0.002 * \text{회피적}) + (0.016 * \text{우울성}) - (0.030 * \text{의존적}) + (0.003 * \text{사교적}) + (0.001 * \text{자기애적}) + (0.009 * \text{반사회적}) - (0.013 * \text{강박적})$$

$$+(0.009*반사회적)-(0.013*강박적)-(0.001*반항적)+(0.041*피학적)-(0.012*경계선)$$

다음으로, 걱정영역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chi^2=149.816^{***}$, $df=11$, $p=.000$), 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인 학사경고를 14.8% 설명하였다(Cox & Snell R^2 .148).

걱정영역에서는 정신적혼란(Wald=6.203, $p>.01$), 학업문제(Wald=79.740, $p>.001$) 척도 PS가 1만큼 상승하는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확률이 각각 1.02배, 1.03배 높아진다. 반대로 거주환경문제(Wald=24.053, $p>.001$) 척도 PS가 1만큼 상승하는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확률이 0.98배 낮아진다. 걱정영역 모델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OR} = \ln [P/(1-P)] = \\ (-0.698)+(0.016*정신적혼란)-(0.009*정체감문제)+(0.002*원가족문제) \\ -(0.008*또래소외)+(0.000*연인관계문제)+(0.029*학업문제)+(0.001*진로문제) \\ -(0.002*학대경험)-(0.018*거주환경문제)+(0.000*경제적부담)-(0.004*종교문제) \end{aligned}$$

마지막으로, 임상징후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chi^2=163.561^{***}$, $df=10$, $p=.000$), 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인 학사경고를 16% 설명하였다(Cox & Snell R^2 .160).

임상징후에서는 자살경향(Wald=5.403, $p>.05$), 주의(인지)결함(Wald=102.809, $p>.001$), 알코올남용(Wald=7.042, $p>.01$) 척도 PS가 1만큼 상승하는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확률이 각각 1.01배, 1.04배, 1.01배 높아진다. 반대로 우울(Wald=5.553, $p>.05$), 불안/긴장(Wald=8.587, $p>.01$), 분노통제(Wald=9.587, $p>.01$) 척도 PS가 1만큼 상승하는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확률이 0.99배 낮아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징후 모델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OR} = \ln [P/(1-P)] = \\ (-0.766)+(0.013*자살경향)-(0.012*우울)-(0.010*불안/긴장)-(0.002*외상후스트레스) \\ -(0.006*섭식장애)-(0.012*분노통제)+(0.043*주의(인지)결함)+(0.000*강박증) \\ +(0.008*알코올남용)+(0.002*약물남용) \end{aligned}$$

부록 5. MCCI PS 범위별 분포에 따른 일반재학생-학사경고자 차이

MCCI는 성격양식은 50점부터 두드러지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며, 걱정영역과 임상징후는 75점부터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변인	군집	빈도(%)		총계	$x^2(p)$
		일반재학생 (N=481)	학사경고자 (N=455)		
내 향 적	PS 0 ~ 49점	358(74.4)	337(74.1)	695(74.3)	0.049 (0.997)
	PS 50 ~ 74점	25(5.2)	23(5.1)	48(5.1)	
	PS 75 ~ 84점	51(10.6)	50(11)	101(10.8)	
	PS 85 ~ 100점	47(9.8)	45(9.9)	92(9.8)	
	총계	481(100)	455(100)	936(100)	
회 피 적	PS 0 ~ 49점	373(77.5)	335(73.6)	708(75.6)	2.994 (0.393)
	PS 50 ~ 74점	48(10)	48(10.5)	96(10.3)	
	PS 75 ~ 84점	29(6)	30(6.6)	59(6.3)	
	PS 85 ~ 100점	31(6.4)	42(9.2)	73(7.8)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우 울 성	PS 0 ~ 49점	389(80.9)	343(75.4)	732(78.2)	6.089 (0.107)
	PS 50 ~ 74점	21(4.4)	17(3.7)	38(4.1)	
	PS 75 ~ 84점	24(5)	31(6.8)	55(5.9)	
	PS 85 ~ 100점	47(9.8)	64(14.1)	111(11.9)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의 존 적	PS 0 ~ 49점	357(74.2)	350(76.9)	707(75.5)	4.090 (0.252)
	PS 50 ~ 74점	89(18.5)	64(14.1)	153(16.3)	
	PS 75 ~ 84점	23(4.8)	25(5.5)	48(5.1)	
	PS 85 ~ 100점	12(2.5)	16(3.5)	28(3)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사 교 적	PS 0 ~ 49점	163(33.9)	137(30.1)	300(32.1)	2.621 (0.454)
	PS 50 ~ 74점	212(44.1)	209(45.9)	421(45)	
	PS 75 ~ 84점	39(8.1)	33(7.3)	72(7.7)	
	PS 85 ~ 100점	67(13.9)	76(16.7)	143(15.3)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일반재학생 (N=481)	학사경고자 (N=455)		
자기애적	PS 0 ~ 49점	145(30.1)	140(30.8)	285(30.4)	2.410 (0.492)
	PS 50 ~ 74점	192(39.9)	191(42)	383(40.9)	
	PS 75 ~ 84점	75(15.6)	74(16.3)	149(15.9)	
	PS 85 ~ 100점	69(14.3)	50(11)	119(12.7)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반사회적	PS 0 ~ 49점	329(68.4)	254(55.8)	583(62.3)	16.161** (0.001)
	PS 50 ~ 74점	139(28.9)	180(39.6)	319(34.1)	
	PS 75 ~ 84점	11(2.3)	17(3.7)	28(3)	
	PS 85 ~ 100점	2(0.4)	4(0.9)	6(0.6)	
	총계	481(100)	455(100)	936(100)	
강박적	PS 0 ~ 49점	150(31.2)	233(51.2)	383(40.9)	67.491*** (0.000)
	PS 50 ~ 74점	137(28.5)	144(31.6)	281(30)	
	PS 75 ~ 84점	94(19.5)	42(9.2)	136(14.5)	
	PS 85 ~ 100점	100(20.8)	36(7.9)	136(14.5)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반항적	PS 0 ~ 49점	364(75.7)	312(68.6)	676(72.2)	8.004* (0.046)
	PS 50 ~ 74점	108(22.5)	128(28.1)	236(25.2)	
	PS 75 ~ 84점	5(1)	12(2.6)	17(1.8)	
	PS 85 ~ 100점	4(0.8)	3(0.7)	7(0.7)	
	총계	481(100)	455(100)	936(100)	
피학적	PS 0 ~ 49점	359(74.6)	260(57.1)	619(66.1)	33.962*** (0.000)
	PS 50 ~ 74점	118(24.5)	182(40)	300(32.1)	
	PS 75 ~ 84점	3(0.6)	7(1.5)	10(1.1)	
	PS 85 ~ 100점	1(0.2)	6(1.3)	7(0.7)	
	총계	481(100)	455(100)	936(100)	
경계선	PS 0 ~ 49점	373(77.5)	327(71.9)	700(74.8)	6.278 (0.099)
	PS 50 ~ 74점	101(21)	119(26.2)	220(23.5)	
	PS 75 ~ 84점	5(1)	3(0.7)	8(0.9)	
	PS 85 ~ 100점	2(0.4)	6(1.3)	8(0.9)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일반재학생 (N=481)	학사경고자 (N=455)		
정신적 혼란	PS 0 ~ 49점		409(85)	346(76)	755(80.7)	14.502** (0.002)
	PS 50 ~ 74점		61(12.7)	82(18)	143(15.3)	
	PS 75 ~ 84점		4(0.8)	8(1.8)	12(1.3)	
	PS 85 ~ 100점		7(1.5)	19(4.2)	26(2.8)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정체감 문제	PS 0 ~ 49점		396(82.3)	339(74.5)	735(78.5)	9.134* (0.028)
	PS 50 ~ 74점		16(3.3)	23(5.1)	39(4.2)	
	PS 75 ~ 84점		37(7.7)	44(9.7)	81(8.7)	
	PS 85 ~ 100점		32(6.7)	49(10.8)	81(8.7)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원가족 문제	PS 0 ~ 49점		407(84.6)	363(79.8)	770(82.3)	4.024 (0.259)
	PS 50 ~ 74점		25(5.2)	34(7.5)	59(6.3)	
	PS 75 ~ 84점		26(5.4)	29(6.4)	55(5.9)	
	PS 85 ~ 100점		23(4.8)	29(6.4)	52(5.6)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또래소외	PS 0 ~ 49점		373(77.5)	316(69.5)	689(73.6)	10.406** (0.015)
	PS 50 ~ 74점		64(13.3)	72(15.8)	136(14.5)	
	PS 75 ~ 84점		19(4)	22(4.8)	41(4.4)	
	PS 85 ~ 100점		25(5.2)	45(9.9)	70(7.5)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연인관계 문제	PS 0 ~ 49점		391(81.3)	348(74.6)	739(79)	4.523 (0.210)
	PS 50 ~ 74점		72(15)	79(17.4)	151(16.1)	
	PS 75 ~ 84점		7(1.5)	13(2.9)	20(2.1)	
	PS 85 ~ 100점		11(2.3)	15(3.3)	26(2.8)	
	총계		481(100)	455(100)	936(100)	
학업문제	PS 0 ~ 49점		353(73.4)	207(45.5)	560(59.8)	93.125*** (0.000)
	PS 50 ~ 74점		79(16.4)	95(20.9)	174(18.6)	
	PS 75 ~ 84점		36(7.5)	101(22.2)	137(14.6)	
	PS 85 ~ 100점		13(2.7)	52(11.4)	65(6.9)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일반재학생 (N=481)	학사경고자 (N=455)		
진로문제	PS 0 ~ 49점	339(70.5)	255(56)	594(63.5)	25.024*** (0.000)
	PS 50 ~ 74점	40(8.3)	55(12.1)	95(10.1)	
	PS 75 ~ 84점	66(13.7)	75(16.5)	141(15.1)	
	PS 85 ~ 100점	36(7.5)	70(15.4)	106(11.3)	
	총계	481(100)	455(100)	936(100)	
학대경험	PS 0 ~ 49점	435(90.4)	398(87.5)	833(89)	3.711 (0.294)
	PS 50 ~ 74점	41(8.5)	46(10.1)	87(9.3)	
	PS 75 ~ 84점	3(0.6)	5(1.1)	8(0.9)	
	PS 85 ~ 100점	2(0.4)	6(1.3)	8(0.9)	
	총계	481(100)	455(100)	936(100)	
거주환경문제	PS 0 ~ 49점	341(70.9)	320(70.3)	661(70.6)	1.247 (0.742)
	PS 50 ~ 74점	134(27.9)	132(29)	266(28.4)	
	PS 75 ~ 84점	5(1)	2(0.4)	7(0.7)	
	PS 85 ~ 100점	1(0.2)	1(0.2)	2(0.2)	
	총계	481(100)	455(100)	936(100)	
경제적부담	PS 0 ~ 49점	364(75.7)	306(67.3)	670(71.6)	17.035** (0.001)
	PS 50 ~ 74점	99(20.6)	104(22.9)	203(21.7)	
	PS 75 ~ 84점	12(2.5)	23(5.1)	35(3.7)	
	PS 85 ~ 100점	6(1.2)	22(4.8)	28(3)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종교문제	PS 0 ~ 49점	439(91.3)	405(89)	844(90.2)	1.533 (0.465)
	PS 50 ~ 74점	41(8.5)	48(10.5)	89(9.5)	
	PS 75 ~ 84점	1(0.2)	2(0.4)	3(0.3)	
	PS 85 ~ 100점	-	-	-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자살경향	PS 0 ~ 49점	407(84.6)	358(78.7)	765(81.7)	7.674 (0.053)
	PS 50 ~ 74점	65(13.5)	77(16.9)	142(15.2)	
	PS 75 ~ 84점	5(1)	10(2.2)	15(1.6)	
	PS 85 ~ 100점	4(0.8)	10(2.2)	14(1.5)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일반재학생 (N=481)	학사경고자 (N=455)		
우울	PS 0 ~ 49점	356(74)	324(71.2)	680(72.6)	2.477 (0.480)
	PS 50 ~ 74점	33(6.9)	34(7.5)	67(7.2)	
	PS 75 ~ 84점	51(10.6)	45(9.9)	96(10.3)	
	PS 85 ~ 100점	41(8.5)	52(11.4)	93(9.9)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불안 / 긴장	PS 0 ~ 49점	265(55.1)	252(55.4)	517(55.2)	2.844 (0.416)
	PS 50 ~ 74점	63(13.1)	45(9.9)	108(11.5)	
	PS 75 ~ 84점	78(16.2)	77(16.9)	155(16.6)	
	PS 85 ~ 100점	75(15.6)	81(17.8)	156(16.7)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외상후스트레스	PS 0 ~ 49점	415(86.3)	372(81.8)	787(84.1)	3.668 (0.300)
	PS 50 ~ 74점	56(11.6)	69(15.2)	125(13.4)	
	PS 75 ~ 84점	6(1.2)	8(1.8)	14(1.5)	
	PS 85 ~ 100점	4(0.8)	6(1.3)	10(1.1)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섭식장애	PS 0 ~ 49점	349(72.6)	312(68.6)	661(70.6)	2.272 (0.518)
	PS 50 ~ 74점	118(24.5)	130(28.6)	248(26.5)	
	PS 75 ~ 84점	9(1.9)	7(1.5)	16(1.7)	
	PS 85 ~ 100점	5(1)	6(1.3)	11(1.2)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분노통제	PS 0 ~ 49점	355(73.8)	331(72.7)	686(73.3)	0.200 (0.978)
	PS 50 ~ 74점	92(19.1)	90(19.8)	182(19.4)	
	PS 75 ~ 84점	20(4.2)	19(4.2)	39(4.2)	
	PS 85 ~ 100점	14(2.9)	15(3.3)	29(3.1)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주의(인지) 결함	PS 0 ~ 49점	373(77.5)	243(53.4)	616(65.8)	68.965*** (0.000)
	PS 50 ~ 74점	97(20.2)	160(35.2)	257(27.5)	
	PS 75 ~ 84점	9(1.9)	40(8.8)	49(5.2)	
	PS 85 ~ 100점	2(0.4)	12(2.6)	14(1.5)	
	총계	481(100)	455(100)	936(100)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일반재학생 (N=481)	학사경고자 (N=455)		
강박증	PS 0 ~ 49점	410(85.2)	372(81.8)	782(83.5)	2.117 (0.548)
	PS 50 ~ 74점	52(10.8)	62(13.6)	114(12.2)	
	PS 75 ~ 84점	13(2.7)	14(3.1)	27(2.9)	
	PS 85 ~ 100점	6(1.2)	7(1.5)	13(1.4)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알코올남용	PS 0 ~ 49점	386(80.2)	319(70.1)	705(75.3)	16.052** (0.001)
	PS 50 ~ 74점	88(18.3)	118(25.9)	206(22)	
	PS 75 ~ 84점	2(0.4)	10(2.2)	12(1.3)	
	PS 85 ~ 100점	5(1)	8(1.8)	13(1.4)	
	총계	481(100)	455(100)	936(100)	
약물남용	PS 0 ~ 49점	462(96)	427(93.8)	889(95)	4.477 (0.107)
	PS 50 ~ 74점	19(4)	24(5.5)	44(4.7)	
	PS 75 ~ 84점	0(0.0)	3(0.7)	3(0.3)	
	PS 85 ~ 100점	-	-	-	
	총계	481(100)	455(100)	936(100)	

$p^* < .05$, $p^{**} < .01$, $p^{***} < .001$

부록 6. MCCI PS 범위별 분포에 따른 학사경고자 군집별 차이

MCCI는 성격양식은 50점부터 두드러지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며, 걱정영역과 임상징후는 75점부터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군집1 (N=182)	군집2 (N=162)	군집3 (N=111)		
내 향 적	PS 0 ~ 49점	149(81.9)	157(96.9)	31(27.9)	337(74.1)	197.810*** (0.000)
	PS 50 ~ 74점	10(5.5)	0(0.0)	13(11.7)	23(5.1)	
	PS 75 ~ 84점	20(11.0)	4(2.5)	26(23.4)	50(11.0)	
	PS 85 ~ 100점	3(1.6)	1(0.6)	41(36.9)	45(9.9)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회 피 적	PS 0 ~ 49점	157(86.3)	161(99.4)	17(15.3)	335(73.6)	275.940*** (0.000)
	PS 50 ~ 74점	17(9.3)	0(0.0)	31(27.9)	48(10.5)	
	PS 75 ~ 84점	5(2.7)	0(0.0)	25(22.5)	30(6.6)	
	PS 85 ~ 100점	3(1.6)	1(0.6)	38(34.2)	42(9.2)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우 울 성	PS 0 ~ 49점	167(91.8)	161(99.4)	15(13.5)	343(75.4)	321.601*** (0.000)
	PS 50 ~ 74점	8(4.4)	0(0.0)	9(8.1)	17(3.7)	
	PS 75 ~ 84점	4(2.2)	1(0.6)	26(23.4)	31(6.8)	
	PS 85 ~ 100점	3(1.6)	0(0.0)	61(55.0)	64(14.1)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의 존 적	PS 0 ~ 49점	151(83.0)	159(98.1)	40(36.0)	350(76.9)	157.973*** (0.000)
	PS 50 ~ 74점	24(13.2)	2(1.2)	38(34.2)	64(14.1)	
	PS 75 ~ 84점	6(3.3)	0(0.0)	19(17.1)	25(5.5)	
	PS 85 ~ 100점	1(0.5)	1(0.6)	14(12.6)	16(3.5)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사 교 적	PS 0 ~ 49점	46(25.3)	24(14.8)	67(60.4)	137(30.1)	85.302*** (0.000)
	PS 50 ~ 74점	95(52.2)	76(46.9)	38(34.2)	209(45.9)	
	PS 75 ~ 84점	15(8.2)	15(9.3)	3(2.7)	33(7.3)	
	PS 85 ~ 100점	26(14.3)	47(29.0)	3(2.7)	76(16.7)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변인	군 집	빈도(%)			총계	$\chi^2(p)$
		군 집1 (N=182)	군 집2 (N=162)	군 집3 (N=111)		
자기애적	PS 0 ~ 49점	51(28.0)	25(15.4)	64(57.7)	140(30.8)	73.334*** (0.000)
	PS 50 ~ 74점	89(48.9)	66(40.7)	36(32.4)	191(42.0)	
	PS 75 ~ 84점	26(14.3)	42(25.9)	6(5.4)	74(16.3)	
	PS 85 ~ 100점	16(8.8)	29(17.9)	5(4.5)	50(11.0)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반사회적	PS 0 ~ 49점	89(48.9)	138(85.2)	27(24.3)	254(55.8)	122.515*** (0.000)
	PS 50 ~ 74점	89(48.9)	23(14.2)	68(61.3)	180(39.6)	
	PS 75 ~ 84점	4(2.2)	1(0.6)	12(10.8)	17(3.7)	
	PS 85 ~ 100점	0(0.0)	0(0.0)	4(3.6)	4(0.9)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강박적	PS 0 ~ 49점	114(62.6)	42(25.9)	77(69.4)	233(51.2)	88.195*** (0.000)
	PS 50 ~ 74점	55(30.2)	63(38.9)	26(23.4)	144(31.6)	
	PS 75 ~ 84점	10(5.5)	27(16.7)	5(4.5)	42(9.2)	
	PS 85 ~ 100점	3(1.6)	30(18.5)	3(2.7)	36(7.9)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반항적	PS 0 ~ 49점	119(65.4)	159(98.1)	34(30.6)	312(68.6)	157.456*** (0.000)
	PS 50 ~ 74점	62(34.1)	3(1.9)	63(56.8)	128(28.1)	
	PS 75 ~ 84점	1(0.5)	0(0.0)	11(9.9)	12(2.6)	
	PS 85 ~ 100점	0(0.0)	0(0.0)	3(2.7)	3(0.7)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피학적	PS 0 ~ 49점	97(53.3)	157(96.9)	6(5.4)	260(57.1)	245.858*** (0.000)
	PS 50 ~ 74점	85(46.7)	5(3.1)	92(82.9)	182(40.0)	
	PS 75 ~ 84점	0(0.0)	0(0.0)	7(6.3)	7(1.5)	
	PS 85 ~ 100점	0(0.0)	0(0.0)	6(5.4)	6(1.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경계선	PS 0 ~ 49점	149(81.9)	160(98.8)	18(16.2)	327(71.9)	241.592*** (0.000)
	PS 50 ~ 74점	33(18.1)	2(1.2)	84(75.7)	119(26.2)	
	PS 75 ~ 84점	0(0.0)	0(0.0)	3(2.7)	3(0.7)	
	PS 85 ~ 100점	0(0.0)	0(0.0)	6(5.4)	6(1.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군집1 (N=182)	군집2 (N=162)	군집3 (N=111)		
정신적 혼란	PS 0 ~ 49점	163(89.6)	162(100)	21(18.9)	346(76.0)	275.320*** (0.000)
	PS 50 ~ 74점	19(10.4)	0(0.0)	63(56.8)	82(18.0)	
	PS 75 ~ 84점	0(0.0)	0(0.0)	8(7.2)	8(1.8)	
	PS 85 ~ 100점	0(0.0)	0(0.0)	19(17.1)	19(4.2)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정체감 문제	PS 0 ~ 49점	157(86.3)	161(99.4)	21(18.9)	339(74.5)	278.451*** (0.000)
	PS 50 ~ 74점	12(6.6)	0(0.0)	11(9.9)	23(5.1)	
	PS 75 ~ 84점	13(7.1)	1(0.6)	30(27.0)	44(9.7)	
	PS 85 ~ 100점	0(0.0)	0(0.0)	49(44.1)	49(10.8)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원가족 문제	PS 0 ~ 49점	152(83.5)	160(98.8)	51(45.9)	363(79.8)	129.486*** (0.000)
	PS 50 ~ 74점	17(9.3)	1(0.6)	16(14.4)	34(7.5)	
	PS 75 ~ 84점	8(4.4)	1(0.6)	20(18.0)	29(6.4)	
	PS 85 ~ 100점	5(2.7)	0(0.0)	24(21.6)	29(6.4)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또래소외	PS 0 ~ 49점	135(74.2)	155(95.7)	26(23.4)	316(69.5)	215.746*** (0.000)
	PS 50 ~ 74점	38(20.9)	7(4.3)	27(24.3)	72(15.8)	
	PS 75 ~ 84점	5(2.7)	0(0.0)	17(15.3)	22(4.8)	
	PS 85 ~ 100점	4(2.2)	0(0.0)	41(36.9)	45(9.9)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연인관계 문제	PS 0 ~ 49점	144(79.1)	154(95.1)	50(45.0)	348(76.5)	108.829*** (0.000)
	PS 50 ~ 74점	33(18.1)	8(4.9)	38(34.2)	79(17.4)	
	PS 75 ~ 84점	4(2.2)	0(0.0)	9(8.1)	13(2.9)	
	PS 85 ~ 100점	1(0.5)	0(0.0)	14(12.6)	15(3.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학업문제	PS 0 ~ 49점	53(29.1)	140(86.4)	14(12.6)	207(45.5)	221.051*** (0.000)
	PS 50 ~ 74점	59(32.4)	16(9.9)	20(18.0)	95(20.9)	
	PS 75 ~ 84점	54(29.7)	6(3.7)	41(36.9)	101(22.2)	
	PS 85 ~ 100점	16(8.8)	0(0.0)	36(32.4)	52(11.4)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변인	군 집	빈도(%)			총계	$\chi^2(p)$
		군 집1 (N=182)	군 집2 (N=162)	군 집3 (N=111)		
진로문제	PS 0 ~ 49점	92(50.5)	147(90.7)	16(14.4)	255(56.0)	178.407*** (0.000)
	PS 50 ~ 74점	31(17.0)	6(3.7)	18(16.2)	55(12.1)	
	PS 75 ~ 84점	36(19.8)	7(4.3)	32(28.8)	75(16.5)	
	PS 85 ~ 100점	23(12.6)	2(1.2)	45(40.5)	70(15.4)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학대경험	PS 0 ~ 49점	169(92.9)	161(99.4)	68(61.3)	398(87.5)	100.534*** (0.000)
	PS 50 ~ 74점	13(7.1)	1(0.6)	32(28.8)	46(10.1)	
	PS 75 ~ 84점	0(0.0)	0(0.0)	5(4.5)	5(1.1)	
	PS 85 ~ 100점	0(0.0)	0(0.0)	6(5.4)	6(1.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거주환경문제	PS 0 ~ 49점	133(73.1)	149(92.0)	38(34.2)	320(70.3)	110.081*** (0.000)
	PS 50 ~ 74점	49(26.9)	13(8.0)	70(63.1)	132(29.0)	
	PS 75 ~ 84점	0(0.0)	0(0.0)	2(1.8)	2(0.4)	
	PS 85 ~ 100점	0(0.0)	0(0.0)	1(0.9)	1(0.2)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경제적부담	PS 0 ~ 49점	112(61.5)	149(92.0)	45(40.5)	306(67.3)	88.591*** (0.000)
	PS 50 ~ 74점	53(29.1)	10(6.2)	41(36.9)	104(22.9)	
	PS 75 ~ 84점	8(4.4)	2(1.2)	13(11.7)	23(5.1)	
	PS 85 ~ 100점	9(4.9)	1(0.6)	12(10.8)	22(4.8)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종교문제	PS 0 ~ 49점	160(87.9)	161(99.4)	84(75.7)	405(89.0)	41.039*** (0.000)
	PS 50 ~ 74점	22(12.1)	1(0.6)	25(22.5)	48(10.5)	
	PS 75 ~ 84점	0(0.0)	0(0.0)	2(1.8)	2(0.4)	
	PS 85 ~ 100점	0(0.0)	0(0.0)	0(0.0)	0(0.0)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자살경향	PS 0 ~ 49점	164(90.1)	161(99.4)	33(29.7)	358(78.7)	220.271*** (0.000)
	PS 50 ~ 74점	18(9.9)	1(0.6)	58(52.3)	77(16.9)	
	PS 75 ~ 84점	0(0.0)	0(0.0)	10(9.0)	10(2.2)	
	PS 85 ~ 100점	0(0.0)	0(0.0)	10(9.0)	10(2.2)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변인	군 집	빈도(%)			총계	$x^2(p)$
		군 집1 (N=182)	군 집2 (N=162)	군 집3 (N=111)		
우 울	PS 0 ~ 49점	145(79.7)	161(99.4)	18(16.2)	324(71.2)	299.934*** (0.000)
	PS 50 ~ 74점	25(13.7)	0(0.0)	9(8.1)	34(7.5)	
	PS 75 ~ 84점	10(5.5)	1(0.6)	34(30.6)	45(9.9)	
	PS 85 ~ 100점	2(1.1)	0(0.0)	50(45.0)	52(11.4)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불 안 / 긴 장	PS 0 ~ 49점	94(51.6)	147(90.7)	11(9.9)	252(55.4)	279.064*** (0.000)
	PS 50 ~ 74점	29(15.9)	8(4.9)	8(7.2)	45(9.9)	
	PS 75 ~ 84점	47(25.8)	7(4.3)	23(20.7)	77(16.9)	
	PS 85 ~ 100점	12(6.6)	0(0.0)	69(62.2)	81(17.8)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외 상 후 스 트 레 스	PS 0 ~ 49점	160(87.9)	160(98.8)	52(46.8)	372(81.8)	131.982*** (0.000)
	PS 50 ~ 74점	21(11.5)	2(1.2)	46(41.4)	69(15.2)	
	PS 75 ~ 84점	1(0.5)	0(0.0)	7(6.3)	8(1.8)	
	PS 85 ~ 100점	0(0.0)	0(0.0)	6(5.4)	6(1.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섭 식 장 애	PS 0 ~ 49점	127(69.8)	155(95.7)	30(27.0)	312(68.6)	146.188*** (0.000)
	PS 50 ~ 74점	49(26.9)	6(3.7)	75(67.6)	130(28.6)	
	PS 75 ~ 84점	3(1.6)	0(0.0)	4(3.6)	7(1.5)	
	PS 85 ~ 100점	3(1.6)	1(0.6)	2(1.8)	6(1.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분 노 통 제	PS 0 ~ 49점	129(70.9)	156(96.3)	46(41.4)	331(72.7)	112.867*** (0.000)
	PS 50 ~ 74점	43(23.6)	5(3.1)	42(37.8)	90(19.8)	
	PS 75 ~ 84점	8(4.4)	1(0.6)	10(9.0)	19(4.2)	
	PS 85 ~ 100점	2(1.1)	0(0.0)	13(11.7)	15(3.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주 의 (인 지) 결 함	PS 0 ~ 49점	69(37.9)	158(97.5)	16(14.4)	243(53.4)	252.450*** (0.000)
	PS 50 ~ 74점	100(54.9)	4(2.5)	56(50.5)	160(35.2)	
	PS 75 ~ 84점	11(6.0)	0(0.0)	29(26.1)	40(8.8)	
	PS 85 ~ 100점	2(1.1)	0(0.0)	10(9.0)	12(2.6)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변인	군집	빈도(%)			총계	$\chi^2(p)$
		군집1 (N=182)	군집2 (N=162)	군집3 (N=111)		
강박증	PS 0 ~ 49점	165(90.7)	161(99.4)	46(41.4)	372(81.8)	169.591*** (0.000)
	PS 50 ~ 74점	16(8.8)	1(0.6)	45(40.5)	62(13.6)	
	PS 75 ~ 84점	1(0.5)	0(0.0)	13(11.7)	14(3.1)	
	PS 85 ~ 100점	0(0.0)	0(0.0)	7(6.3)	7(1.5)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알코올남용	PS 0 ~ 49점	107(58.5)	146(90.1)	66(59.5)	319(70.1)	57.385*** (0.000)
	PS 50 ~ 74점	67(36.8)	16(9.9)	35(31.5)	118(25.9)	
	PS 75 ~ 84점	6(3.3)	0(0.0)	4(3.6)	10(2.2)	
	PS 85 ~ 100점	2(1.1)	0(0.0)	6(5.4)	8(1.3)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약물남용	PS 0 ~ 49점	173(95.1)	162(100)	92(82.9)	427(93.8)	36.476*** (0.000)
	PS 50 ~ 74점	9(4.9)	0(0.0)	16(14.4)	25(5.5)	
	PS 75 ~ 84점	0(0.0)	0(0.0)	3(2.7)	3(0.7)	
	PS 85 ~ 100점	0(0.0)	0(0.0)	0(0.0)	0(0.0)	
	총계	182(100)	162(100)	111(100)	455(100)	

$p^* < .05$, $p^{**} < .01$, $p^{***} < .001$